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2009학년도 입학식

미술대학 조소과 柳熙園양이 신입생 3천2백29명을 대표해 선서한 후 李長茂총장과 악수를 했다. <관련기사 16면>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 관악대상 수상자

지난 3월 20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회 관악대상을 시상했다. 좌로부터 孫一根상임부회장, 李俊鎔(협력부문) 동문, 金貞植(참여부문) 동문, 金信福부총장, 林光洙회장, 朴在甲(영광부문) 동문 부부, 李俊行(해외부문) 동문 부부 <관련기사 3~5면>

관악추추

어느 조직이 발전하고 있느냐를 알려면 조직원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된다. 조직원의 열성이 시들하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일단 그 조직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에 조직원이 열성을 보이면서 자기 일처럼 참여하고 협력하면 그 조직은 융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월 20일에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총회는 동문들의 열화 같은 참여로 대성황을 이뤘다. 한 해가 다르게 참여하는 동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총회 분위기도 시종 화기가 가득했다.

그렇다. 서울대총동창회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총동창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꼭 40주년이 됐다. 청년기를 지나 숙년기로 들어섰다. 연륜이 더해 갈수록 동문들의 참여도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동창회의 발전과 더불어 서울대인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언제나 말했듯이 서울대인은 이제 더 이상 흩어지는 모래알이 아니다. 가슴 속에 동문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가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충만해졌다.

총회에서 우리는 제11회 관악대상 수상자의 자랑스러운 얼굴도 보았다. 참여부문의 金貞植 대덕전자 회장, 협력부문의 李俊鎔 대림산업 명예회장, 영광부문의 朴在甲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해외부문의 李俊行 Junees상사 회장. 이들은 한 우물을 파면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을 했고 모교의 발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다. 상을 받고 있는 장면에서 참석자들은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한편으로 서울대를 빛낸 이들에게서 크나큰 자부심을 느꼈다.

서울대인은 항간에서 일부 비판하듯이 이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자리였다. 조직

이제 우리도 자부심을 갖자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개인주의자라는 힐난도 눈독트 사라지는 현상이었다. 이제 우리는 단합된 마음과 힘으로 더 멀리 밖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안 속에서 서울대인이 지혜를 짜내어 국민과 국가의 희망찬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일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林光洙 총동창회 회장이 총회 인사말에서 힘을 주어 말했듯이 "서울대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임을 새삼 다짐해야 할 것이다.

(李炯均는설위원)

● **느리나무팡팡**

‘봄은 왔건만, 봄 같지 않구나’

당나라 시인 東邦파가 중국 절세의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가련한 王昭君을 소재로 쓴 시가 이 글의 출전이다.

한나라 元帝는 침략을 일삼는 흉노 왕을 달래려고 공녀를 한 명 주기로 했다. 궁중화가에게 공녀 초상화를 그려놓게 했던 원제는 가장 못난 공녀를 찍었다. 공녀들은 황제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예쁘게 그려 달라며 뇌물까지 바쳤다.

하지만 미모에 자신만만했던 왕소군만 예외였다. 과썸하게 여긴 화가는 그를 못나게 그렸고 오랑캐 땅으로 떠나는 왕소군의 실물을 본 원제는 뒤늦게 땅을 쳤다. 봄은 왔건만, 꽃도 풀도 피지 않는 동토의 땅, 그곳에서 왕소군이 빠져리게 느낀 망향의 아픔을 형상화한 이 시의 첫 구절은 ‘胡地無花草’이다.

나라의 산과 들판에 울긋불긋 꽃이 피고, 풀도 과랴게 돌아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의 봄은 왔건만, 진정 마음에서 봄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미증유의 경제대란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현 상황에 당황한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작금의 이런 상황을 ‘無知의 소용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관료를 지낸 한 지인은 지난해 연말 섬뜩한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에 경제 규모 15위권 안에 있는 1~2개 국가가 국가부도(default)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50위권까지 내려가면 10여 개 국가가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뚜렷한 근거를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모골이 송연해졌다. 국가부도를 맞게 되는 15위권 내의 국가로 바깥에선 대한민국을 유력하게 꼽는다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비관론이 꼭 들어맞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몰셀 틈 없이 대비해야 한다. 서울대 동문들이 미증유의 경제대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한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없다. 水滴石穿(물방울이 돌을 뚫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위기를 돌파하자.

春來不似春

崔 英 勳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그 4월의 그 날

朴 榮 姬(행정61-65)

서울법대장학재단 이사·시인

목련이
하얗게 곱던 그 날
겨우내 지열로 구웠어도
설익은 백자는
부서져 내리면서
봄을 앓았다

그토록 4월은
그 4월은
스무살의 꿈으로
시린 어깨 위로 흐르는 세월을
받쳐들고
하얗게 웃어왔다
하얗게 울어왔다

내 혈관 속에
아직도 식지 않은
신열이 남았음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와의 내통이 있음이니

4월의 햇살 아래서
나는
그 날의 누드가 된다

동문칼럼

서울대는 1946년 개교한 이래 많은 학과와 전공을 개설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었고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서 높은 명성을 세계에 구축했다. 서울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꾸준히 개혁과 혁신을 거듭해 다양한 학문을 포용하는 종합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대학원이 중심이 되며 최근 대학원들은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 더욱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서울대도 일반대학원 외에 현재 8개의 전문대학원이 있으며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하 융대원)은 2009년 3월에 개원한 새 내기이다.

융대원은 나노융합학과, 지능형융합시스템학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에 석·박사과정인 개설돼 있다. 입학정원은 72명이고

의 탄생을 위해 학문 사이의 폭 넓은 교류 내지 융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 특히 최근 공학, 자연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이 융합한 성공사례가 급증하면서 융합이 21세기 지구촌을 달구는 키워드로 각광을 받게 됐다.

융합에 대한 관심은 2001년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컨버전트 테크놀로지가 언급되면서 시작됐다. IT, BT, NT, CT 등이 융합하면 거대한 신기술과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됐다.

이후 융합은 의학학, 인문학, 경제학으로 범위를 넓혔고 지구 에너지, 환경 이슈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할 신성장동력으로 채택됐고 융합 관련 연구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됐다.

융합의 성공은 그러나 탄탄한 융합 기초교육 없이는 매우 어렵다. 융합연구의 특성은 자유로운 마인드, 창의성, 넓은 시야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다른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는 필수이다.

특정 분야의 기존 전문가가



崔 陽 熙

(전자공학71-75)

모교 융합과학대학원

원장

프로페셔널한 융합전문가 키운다

전임·겸무교수 25명이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융대원은 서울 관악캠퍼스에도 일부 시설이 있으나 주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이고 매우 훌륭한 교육과 연구시설, 기숙사를 완비하고 있다. 광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과는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융합 교육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한다.

왜 융합인가? 오랜 전통을 가진 성숙된 학문에서는 미시적으로 문제를 해체해 연구하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써 얻는 발견으로서의 신학문이나 신지식이 더 이상 탄생되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신지식의 창조 내지 이에 따른 신산업

융합전문가로 탈바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융합전문 인재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최초의 융합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융대원은 석·박사 재학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토론식 교육, 연구와 교육의 병행, 산학협동연구 필수화, 그리고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대학원 교육과 차별화를 이룰 것이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프로페셔널한 융합전문가를 키우는 전문대학원이다. ‘We Innovate’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서울대의 신설 기관에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大同憲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鶯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가 초일류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총회 성황 … 모교 개교 원년 재조정 건의안 채택

金貞植·李垞鎔·朴在甲·李俊 행동문 관악대상 수상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 겸 제11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範洙(경영88-92)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교가 초일류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본회는 작년부터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명문대 순위에서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창회보에 기사를 소개해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을 발간했으며 모교 총장님께 이를 건의해 신중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빌딩에 대해 “2008년 7월까지 구 건물과 불법 침범한 인접건물의 철거작업을 완료해 Top-Down방식의 신공법(BRD공법)으로 현재 지하 6층까지 굴착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4월부터 지상층 공사가 시작돼 장학빌딩의 위용이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金信福부총장은 축사에서 “요즘 경제위기로 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모교가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동반자사회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사회적으로는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인턴십과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효율적인 행·재정 관리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창의적 지식과 기술 개발, 개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부문에 대덕전자 金貞植(전자공학48-56)회장, 협력부문에 대림산업 李垞鎔(경제56-60)명예회장, 영광부문에 모교 의대 朴在甲(의학67-73)교수, 해외부문에 Junee상사 李俊行(섬유공학48-54)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공적 및 수상 소감 4면 참조)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결과보고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冠岳大賞의 위상이 높아지고 전통이 쌓이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며 “‘賞’이란 받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받는 賞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공동문에 대한 공로패 시상식에서 제4대 관악언론인회장으로 현신한 본보 李炯均(정치59-64 한국신문방송인협회장)논설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관악대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오 기쁜 날’, ‘경복궁 타령’, ‘Perhaps Love’, ‘Nessun Dorma’, ‘Funiculi Funicula’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열창했다.



모교 성악과 중창단의 흥겨운 축하공연

金範洙아나운서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재학생들을 소개하자 앵글로 ‘우리들은 미남이다’라는 곡으로 짧은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모교 전임총장인 權壽赫교수는 건배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조건은 건강과 돈이라고 했는데, 돈은 잘 써야 행복할 수 있다”며 “여기 계신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수상자들께서는 열심히 번 돈을 모교와 사회를 위해 멋있게, 올바르게 쓰신 분들로 존경해마지 않는다”고 말한 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힘차게 외쳤다.

만찬 후 2부 안건 심의에선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한 동창회 결산, 회칙 개정, 그리고 ‘모교에 대한 개교 원년 재조정 촉구 건의안’ 등이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개교 원년 재조정 건의 표제안 등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 명예교수는 동문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교 원년 재조정에 대한 보고를 했다.

李명예교수는 “국립서울대학교는 광복 후 1946년 미군정청 의해 설립됐는데,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전의 여러 전문학교의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전문학교는 조선말 대한제국기에 신문명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관립고등교육기관으로, 그 시원이 대한제국기 또는 직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되찾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교 원년을 몇 년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 李명예교수는 “1895년 5월 6일 개교한 법관양성소가 가장 오래됐다”며 “하버드대

는 목사양성소에서 시작됐으나 법관양성소는 우리 정부가 근대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관립학교이자 咸台永 前부통령, 李 僑烈사 등 출중한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 사무총장이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2008년도 결산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를 요약·보고했으며, 朴英俊가사 2008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동창회 2008년도 결산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세트, 姜信浩(의학46-52)교문의 생활한자 도서, 양지진흥개발 柳承斌(공업교육63-71)회장이 운영하는 드래곤힐스와 이용권, 이화여대 金廷憲(기약87-91)교수의 피아노CD 등 푸짐한 기념품을 받았다. 또 서울대총동창회 KB패스카드 홍보부스가 마련돼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表)

林光洙회장 개회사 <요지>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작년 한 해 모교가 각종 세계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고, 모교의 여러 교수들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노벨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등 반가운 소식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올해에도 국가적인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모교가 초일류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총동창회는 작년년부터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심의, 발표하는 명문대 순위에서 그 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학교의 역사가 결집물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창회보에 기사를 소개하는 등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총동창회는 제가 회장에 취임한 후 동문들의 숙원인 새 동창회관의 건립을 천명하고 그동안 2007년 마포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8년 7월까지 구 건물과 불법 침범한 인접건물의 철거작업을 완료해 Top-Down방식의 신공법(BRD공법)으로 현재 지하 6층까지 굴착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를 맞이해 금융이자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창회의 장학재단만은 장학빌딩의 안정적 임대수익금으로 안심하고 장학사업과 교수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장학빌딩 완공과 함께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가 펼쳐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중흥비전과 도약 플랜’에 따라 ‘미래로 나아가는 동창회’가 되도록 다양한 동창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창회의 세계화를 향한 국제적 제휴 및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교와 함께 하는 동창회’가 되고 ‘동문에게 다가가는 동창회’로서 동문간 휴먼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동문과 모교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제11회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대덕전자 金貞植회장

▲1948년 공과대학 전자공학
과에 입학해 1956년 졸업했다.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대영전
자공업 대표이사를 맡은 뒤 1965
년부터 현재까지 대덕산업·대덕
전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전기통신산업 불
모지였던 한국 전기통신 분야를
성장시킨 金동문은 2000년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해 국가 경제발
전에 이바지했을뿐만 아니라 관

련산업 발전에도 큰 공로를 세
웠다.
전자공학과동문회장을 역임한
金동문은 1995년부터 공대동창
회 부회장, 1996년부터 본회 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모교와 동창회에 63
억여 원의 기금을 출연해 노블
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 부회장, 한국
정보산업 연합회 이사로 있으

며, 2001년 자랑스러운 공대 동
문상, 2006년 모교 공대와 한국
공학한림원이 공동주관한 ‘한국
을 움직이는 엔지니어 60인’에
선정됐다.
▲金貞植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40년간 국내 최초의 전자
부품 업체인 대덕전자를 설립,
경영해 오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던 동문 여러분들께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자 1972년부터
공대 전자공학과동문회장을 맡
아 일하기 시작했다”며 “6·25
직후였던 재학당시 모든 환경이
참으로 어려웠고 학교 내 도서

실도 턱없이 부족해 주로 종로
에 있던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
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공학과동문회장으
로서 후배들을 위한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
각해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을
설립했으며, 재학시절 도서관에
대해 아쉬웠던 기억이 떠올라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에 도서
관을 만들기 시작해 지금은 3호
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앞
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힘
닿는 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밝혔다.

협력부문 대림산업 李垞鎔 명예회장

▲1956년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해 1960년 졸업했다.
1964년 미국 덴버대 통계학 석
사학위를 받은 뒤 대학 강사 생
활을 하다 귀국, 국내 대학에서
도 잠시 강의를 하기도 했다.
1966년 대림산업에 입사해
1979년부터 그룹 총수로서 대림
엔지니어링 사장, 대림산업 사
장·부회장·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40여 년간 대림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대림산업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일궈냈으며 대
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했다.
대림산업은 1966년 베트남 진
출로 국내 최초로 해외건설시장
을 개척한 이래 중동건설 붐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1976년
상장한 이래 30여 년 동안 배당



을 거르지 않은 기업으로 유명
하다.

李동문은 1978년 대림산업 부
사장 시절 건설업계 최초로 전산
화작업을 추진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으며, 건설과 석유
화학의 양대 산업을 구축해 안정
적으로 기업을 발전시켰다.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국제
상업회의소 한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李동문은 현재 한국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서울지회장, 한
국청소년연맹 부총재, 한국능를
협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86년부터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李동문은 본회 장학빌
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
했으며, 모교에 총 50억원의 사
업비를 들여 언어교육원 증축사
업인 국제관을 건립해 모교 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
▲李垞鎔 명예회장은 수상소감
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고도
‘사람이 왜 저래’라는 얘기가 나
오지 않고, 모교의 수많은 선후
배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 상을 계기로 최선을 다해 나
라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
겠다”고 말했다.

영광부문 모교 의대 朴在甲교수

▲1967년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해 1973년 졸업했으며,
1976년 석사학위, 1979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모교 의대 전임강사로
부임해 현재 외과학교실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1984년 모교 암 연구소 간사
시절 한국 최초로 암세포 배양에
성공해 암 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암센터 초대·2대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암 관련 법령제정 등
국가 암 관리체계 구축에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흡연을 막기 위해 ‘금연전도
사’로 발벗고 나서 금연교육, 방
송매체에서의 흡연 장면 사진배
제 등 금연사업을 활성화해 흡연
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인 차동문은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대장외과학회

차기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朴在甲교수는 수상소감을 통
해 “저는 우리 민족의 대학인 서
울대를 졸업하고 모교 교수로 근
무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
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1995년부터 5년간
모교 암 연구소장 일을 맡기셨을
때는 삼성 李健熙회장으로부터 4
천만 달러를 기부받아 암 연구동
을 지을 수 있었고, 국가의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실천해 우
리나라 암 예방과 치료 및 관리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

조했다.
아울러 “2000년부터 6년간 국
립암센터 원장 일을 맡기셨을 때
는 ‘암은 극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암 사망원인의 30%를 차
지하며 독극물 마약인 담배를 추
방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씀
드렸다”며 “이 관악대상은 국민
들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담배
를 빨리 추방할 수 있도록 더 노
력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10~2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모
든 분들이 담배를 끊어 담배를
팔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부문 Junee상사 李俊行회장

▲1948년 공과대학 섬유공학
과에 입학해 1954년 졸업했다.
1958년 영국 Leicester Engi-
neering College에서 Intensive
Course를 1년간 수료했다.
이듬해 영국 Bentley Engi-
neering Group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다.
이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1960년부터 현재까지 여든의 나
이에도 아들과 함께 수출입상사

를 경영하며 미국에서 모범적이
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주
동창회 뉴욕지부 이사장을 역임
했으며, 2008년부터 미주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과 본회 부회
장으로 동창회 발전에 헌신해
왔다.
또 지난 2006년 7월 본회 장
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만 달러
를 쾌척해 미국에서의 건립기금



조성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모
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2008년 제2회 재미 동문

상 시상식에서 참여 부문을 수상
했다.
▲李俊行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고, 힘이 돼주고, 버팀목이
돼준 모교와 총동창회의 한결같
은 사랑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
고 운을 뗀 뒤 “되돌아보면
1960년 미국으로 건너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타지에서 보내
면서도 삶의 다양한 길목에서 방
향을 제시해주고, 힘든 고비 때
마다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게 해
준 모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늘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林光洙회장께서 모교
를 돕기 위해 장학빌딩을 건립하
겠다고 천명하고 그 뜻을 헤아리
면서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
다”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
문들을 조금이라도 단합시키는
것이 곧 서울대의 위상을 드높이
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
고 첫 주자로 기금을 출연한 것
이 이처럼 저에게 더 큰 상으로
보답해주시니 앞으로 모교와 총
동창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
고 말했다.



본회 상임이사회·관악회 이사회

회칙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결

AFP·ASP과정 준회원 영입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53차 상임이사회·관악회 제107차 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6~7면 하단 참조〉

林光洙회장은 장학발딩 보고에서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를 맞이해 금융이자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장학재단만은 장학발딩의 안정적 임대수익금으로 안심하고 장학사업과 교수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회칙 제5조 제2항(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에 따라 인문대학 부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과 경제연구소에서 개설한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다.

또 회칙 제11조 제2항(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거

한 회칙 개정에서 회원의 자격, 임원과 임기 및 임원의 선임, 사무처 운영규정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모교에 대한 개교 원년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동창회는 회비수입 13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22억 4천만원을 수입으로 거뒀으며, 간행물비 6억 3천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6천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해 총 3억 8천 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2008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쳤다.

대학로 ‘학림’과 ‘진아춘’의 추억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주)샘터(대학로 소재)에서는 50~70년대 대학로의 젊음의 공간 ‘학림’과 ‘진아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자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의 토론장이자, 젊은이들의 연애와 낭만의 공간이었던 학림,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값싸고 맛있는 자장면을 내주던 진아춘. 그 시절의 잔잔하고 애틋한 추억이 살아있는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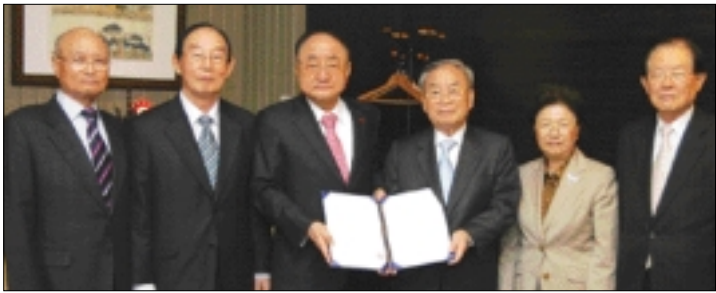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와 선물을 드립니다.

- 접수방법 : 원고(2백자 원고지 10매 이상), 사진
- 보내주실 곳 : 1)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5 샘터 3층
2) 이메일 : book@isamtoh.com
- 접수기간 : 2009년 7월 31일까지 •문의 : 02)763-8965

도서출판 (주)샘터

뉴욕 Junees상사 李俊行회장

장학발딩 건립기금 총 20만불 쾌척



孔大植·尹勤煥부회장, 林光洙회장·李俊行동문 부부, 孫一根상임부회장

지난 3월 23일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뉴욕 Junees상사 李

朴明潤특지장학금 전달

청소년보호위원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 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朴明潤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朴明潤위원장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金寶蘭(보건학 전공)·張珍喜(보건정책관리학 전공)동문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17명 후보 심사… 해외부문도 선정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孫一根운영위원장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11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대덕전자 金貞植(전자공학48-56 참여부문)회장, 대림산업 李竣鎔(경제56-60 협력부문)명예회장, 모교 의과대학 朴在甲(의학67-73 영광부문)교수, Junees상사 李俊行(섬유공학48-54 해외부문)회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 孫

俊行(섬유공학48-54 본회 부회장)회장이 추가로 10만 달러를 출연했다.

2006년 7월 10만 달러를 출연한 것을 포함해 ‘李俊行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20만 달러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3월 20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관악대상 해외부문을 수상한 李회장은 “모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총동창회의 장학발딩이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며, 자녀와 손자들이 자랑스럽게 드나들 그 날을 위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表)

一根운영위원장, 白文基·尹勤煥·朴熙伯·李世中·郭永駟·徐桂淑·金鳳九·李炯均·鄭興淑·朴英俊·辛鉉雄·尹順寧·吳世正·朱鍾南·朴鸞壽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추천된 5명(운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치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을 포함해 17명의 동문이 대상 후보에 올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위 네 명의 동문을 선정했다. 해외부문의 경우 3년 주기로 시상하고 있다. (南)

4월은 희망의 달 ... 총회의 계절

SPARC동창회

洪起南회장 선출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林漳周)는 지난 3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진보공업 洪起南(5기)회장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李三雨(3기)·柳賢善(8기)동문을 선임했다.

洪起南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창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동문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14기까지 모두 4백여 명의 회원을 둔 큰 조직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창회 임원으로 張在軫(2기)명예회장, 徐榮出(1기)동문 등 고문 9명, 李義市(9기)상임수석부회장, 白雲鶴(8기)동문 등 수석부회장 6명, 曹龍權(1기)동문 등 부



洪起南회장 (右)이 徐榮出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회장 14명, 李靑山(5기)사무총장, 김지현(13기)기획국장, 金鍾演(11기)사업국장, 金尙熙(5기)재무국장, 朴珍淑(9기)여성국장, 尹錫九(10기)홍보국장, 田東勳(1기)동문 등 이사 14명이 봉사하기로 했다.

동창회는 올해 신입생 환영회, 조찬 세미나, 골프대회, 송년행사, 회원 경조 사업 등으로 9천2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동승클럽

朴熙俊회장 추대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宋常熙)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선릉동 현죽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국보해운 朴熙俊(정치65-70)회장, 감사에 유 훈(지리65입)동문을 선출했다.

부회장으로는 姜鎬洋(독문65-72)·高哲煥(식물65-69)·金大起(외교65-69)·朴明珍(불문65-69)·夫貞愛(사학65-70)·崔一玉(미학65-69)동문 등 19명을 선임했다.

총무는 金容泰(철학65-74)동문이 계속 수고하기로 했다.

동승클럽은 오는 5월 15일(금)~16일(토) 부산으로 춘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사회학파동창회

張錫準회장 뽑아

사회학과동창회(회장 李 哲)는 지난 2월 16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대회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張錫準(사회64-68)前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權泰旭(사회75-82)동문을 선임했으며 李宣泰(사회83-88)총괄 총무는 유임했다.

한편 오는 6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에서 43회(85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李純炯동문 부부, 金眞浩동문 부부, 河權益전임 회장, 盧寬澤동문부부

의과대학동창회

朴容晔회장 취임·함춘대상 시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소피텔 엠배서더호텔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동창회장에 두산건설 朴容晔(의학62-68)회장을 추대했다.

朴容晔회장은 “3년전 모교 병원장을 끝으로 의료계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동창회장으로 의료계에 복귀하게 된 것 같다”며 “마지막 의료계 봉사라 생각하고 선후배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朴容晔회장은 모교 의대 교수시절 병원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병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河權益전임 회장은 “임기 중 선후배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로 동창회 살림을 발전적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河權益전임 회장은 임기 동안 동창회 재산을 7억여 원으로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1943년부터 2000년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선후배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창회는 이날 제10회 함춘대상 사회공헌·의료봉사·학술연구

부문 수상자로 각각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盧寬澤(의학49-55)·재활의학교실 金眞浩(의학55-61)·기생충학교실 李純炯(의학56-62)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함춘대상’은 동문 중 생애를 통해 학술연구, 의료봉사 또는 사회공헌 부문에서 인류 복지증진이나 국가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겨 의대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3억9천9백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특별회원을 신설하는 등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술대학동창회

金鳳九회장 유임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83동 501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회장이 유임돼 앞으로 2년 더 동창회를 맡아 봉사하기로 했다. (南)

HPM동창회

李相昊회장 선임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姜普英)는 지난 3월 23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우리들 의료재단 李相昊(3기)이사장(사진)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李相昊회장은 취임사에서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동창회 산하 기구인 한국보건정책연구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李회장은 盧武鉉 前대통령 허리디스크를 수술해 널리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결산보고 결과 동창회는 1억5천8백만원(한국보건정책연구원 기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3,503,897,677	부채	64,645,548
1.유동자산	3,501,519,516	1.유동부채	36,518,756
(1) 당좌자산	3,501,519,516	1)미지급금	18,013,740
1) 현금	1,831,748	2)예수금	18,505,016
2) 보통예금	3,350,440,808	2.비유동부채	28,126,792
3) 미수수익	84,123,410	1) 퇴직급여충당금	28,126,792
4) 미수금	44,000,000		
5) 선납세금	21,123,550	자본	3,439,252,129
(2) 재고자산	0	1.자본금	4,161,271
2.비유동자산	2,378,161	1) 기본금	4,161,271
(1) 투자자산	305,750	2.자본잉여금	0
1) 지급보증금	305,750	3.자본조정	0
(2) 유형자산	2,072,411	4.이익잉여금	3,435,090,858
1) 비품	79,596,691	1) 미처분이익잉여금	3,435,090,858
감가상각누계액	(77,524,280)	※ 당기순이익	385,546,944
합 계	3,503,897,677	합 계	3,503,897,677

손 익 계 산 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386,881,656	13) 전산화비용	19,559,900
1) 광고수입	386,881,656	14) 친목사업비	188,762,196
2.매출원가	632,376,869	15) 지원사업비	68,967,020
1) 간행물비	632,376,869	16) 조직강화비	508,722,499
3.매출총손실	245,495,213	17) 사무비	14,794,326
4.판매관리비	1,227,967,418	18) 예치금기금전출	31,480,000
1) 직원급여	82,371,700	5.영업손실	1,473,462,631
2) 상여금	17,100,000	6.영업외 수익	1,859,009,575
3) 제수당	15,492,900	1) 수입이자	181,408,639
4) 퇴직급여	77,935,638	2) 찬조금수입	265,467,694
5) 복리후생비	6,160,730	3) 회원회비	1,357,948,824
6) 여비교통비	10,044,018	4) 잡수입	54,184,418
7) 세금과 공과금	9,489,770	7.영업외 비용	
8) 감가상각비	2,471,304	1) 잡손실	0
9) 보험료	5,268,490	8.법인세차감전이익	385,546,944
10) 회의비	156,410,157	9.법인세 비용	
11) 지급수수료	11,075,120	10.당기순이익	385,546,944
12) 잡비	1,861,650		

위와 같이 공고함
2009. 3.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간호대학동창회

洪京子회장 선출·장학금 전달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지난 3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정기총회를 비롯해 발전기금 출연자 부조상 제막식, 신입회원 환영식,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倫京회장, 朴誠愛·尹順寧전임 학장, 宋美順학장, 朴貞浩명예교수, 李愛珠국회의원 등 1백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행사로 간호대학 신관 로비

에서 楊銀淑·崔愛玉·徐文子동문 부조상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동창회는 앞으로도 고액의 기금을 출연한 동문들의 부조상을 제작해 이곳에 전시할 계획이다.

제막식 후 본관 2층 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동문들은 20여 명의 신입회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며 따뜻하게 환대했다.

또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재학생 12명에게 장학금 9백만원을 전달했다.



洪京子회장, 李倫京전임 회장, 발전기금 출연자 가족

현재 동창회에는 李貴香·金南連·李倫京·崔愛玉·李正子·姜信子·金基珠·金顯姬·57회 동기회·

LA지부 특지장학회(설립 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洪京子회장, 趙東蘭·金京南 감사를 선출했다.

洪京子회장은 “간호대학 백주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장학금을 두 배 증액하는 등 동창회 위상을 드높인 李倫京전임 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 기운을 이어받아 새 사업으로 동문과 재학생간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시작해 진로를 걱정하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 회계보고 결과 전임 회장단의 노력에 힘입어 동창회 재산이 총 9억원(교육연구재단 기금 포함)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AIC동창회

李世韓회장 선임



李世韓회장, 하호선·朴慶淑감사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敬俊)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2대 회장에 GT&T 李世韓(11기)대표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朴慶淑(8기)·하호선(9기)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敬俊회장, 모교 金信福부총장, 행정대학원 崔炳善전임 원장, 崔鍾元원장, 朴正燦교수를 비롯해 1백여 회원이 참석해 12대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동창회는 올해 행대원 50주년 행사 지원(5월), 업체탐방(5·10월), 골프대회(5·10월), 세미나(분기별), 28기 입학식 및 수료식, 사은회(5월), 회의 등의 사업비용으로 1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새 임원진에 위촉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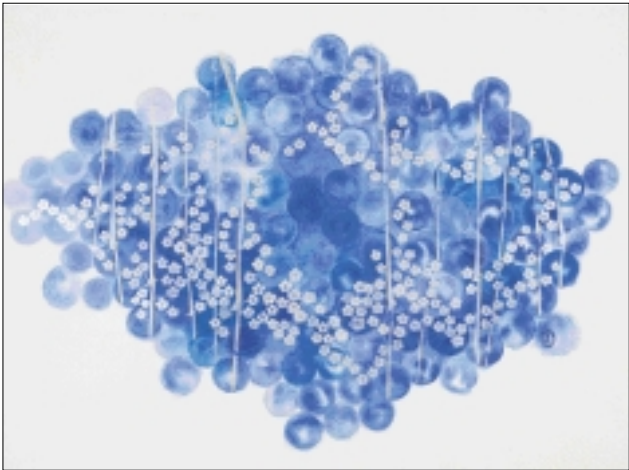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3월 24일 대전 시내 만두레에서 宋容浩교문, 吳應準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吳應準회장이 신임 임원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金星銖(치의학67-74)김성수치과 원장·朴正九(의학69-75)바른손외과 원장·金炳克(물리79-83)하기소닉 대표 ▲간사장：張文熙(원자핵공학71-76)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본부장 ▲총무간사：金昇俊(농화학78-85)한남대 화학과 교수·李奉鎬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朴昭映作

〈작가약력〉

- ▲92~96년 모교 동양화과 졸업
- ▲96~00년 모교 대학원 졸업
- ▲04년 모교 미술교육 박사과정 수료
- ▲98~09년 개인전 4회
- ▲07년 뉴욕아트 엑스포
- ▲08년 情·町·精 - 한국작가전, 아세아의 새로운 도약전
- ▲09년 빛나는 현대미술 2009
- ▲현재 고려대·춘천교대·한양대 강사

‘The cosmos and nature’, 한지에 안료, 130×97cm, 2008.

(치의학86-90)엘치과 원장 ▲사업간사：金寬炯(토목공학79-83)한국철도공사 기술연구팀장·安正雄(화학82-87)바둑학원 원장 ▲섭외간사：朱亨國(원자핵공학78-82)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崔承鎔(경영85-89)송강회계법인 회계사 ▲홍보간사：申元湜(식물78-85)대전MBC 경영국장 ▲편집간사：金鍾柱(영문91-97) LUX어학원장.

FIP동창회

3대 집행부 구성

미래정보기술융합과정동창회(회장 金明道)는 지난 3월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2009년을 이끌어갈 제3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수석부회장에 咸光鮮(5기) 동문을 선임했으며 고문으로 申奉

台(1기)·安宣源(1기)·趙允淑(1기)·李哲佑(2기)·崔裕變(2기)동문 등 12명을 위촉했다. 또 朴宰圭(1기)·任光彬(1기)·韓相基(1기)·鄭賢秀(2기)동문 등 15명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박지관(1기) 재정간사, 송윤석(5기)홍보간사, 염동현(5기)섭외간사 등이 실무 책임자로 봉사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4월 18일 관악산에서 춘계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南)

2008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33,150,767,515	부채	35,906,109
I. 유동자산	26,847,971,505		
(1) 당좌자산	26,847,971,505	I. 유동부채	3,947,07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1,956	1. 미지급금	1,362,388
2. 미수수익	882,595,126	2. 예수금	2,584,690
3. 미수금	816,050	3. 단기차입금	
4. 예치금	25,445,273,823		
5. 부가세대급금	378,199,310	II. 비유동부채	31,959,031
6. 선납세금	140,945,240	1. 퇴직급여충당금	31,959,031
(2) 재고자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II. 비유동자산	6,302,796,010		
(1) 투자자산	0		
1. 투자유가증권	0	자본	33,114,861,406
(2) 유형자산	6,300,993,338		
1. 토지	624,290,410	I. 출연금	11,436,309,320
2. 차량운반구	36,915,470	1. 출연금	11,436,309,320
감가상각누계액	34,948,364		
3. 비품	82,433,968		
감가상각누계액	(81,274,133)	II. 이익잉여금	21,678,552,086
4. 건설 중인 자산	5,673,575,987	1. 미처분 이익잉여금	20,499,596,096
(3) 무형자산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78,955,990
(4) 기타비유동자산	1,802,672		
1. 전신전화가입권	1,802,672		
합 계	33,150,767,515	합 계	33,150,767,515

손 익 계 산 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사업수익	1,387,973,128	13. 소모품비	6,510,200
1. 이자수익	1,387,973,128	14. 지급수수료	14,072,250
2. 배당금수익	0	15. 장학사업비	569,520,000
II. 사업비용	833,143,084	16. 잡비	546,460
1. 직원급여	95,202,920		
2. 퇴직급여	33,015,781	III. 사업이익	554,830,044
3. 복리후생비	2,002,780	IV. 사업외 수익	7,094,579,284
4. 여비교통비	6,600,000	1. 지원금	7,092,499,666
5. 통신비	6,604,338	2. 유형자산처분이익	0
6. 수도광열비	0	3. 잡이익	2,079,618
7. 세금과공과금	87,937,360		
8. 감가상각비	2,337,933	V. 사업외 비용	209,040
9. 보험료	1,494,920	1. 이자비용	0
10. 차량유지비	5,053,472	2. 전기오류수정손실	0
11. 회의비	1,586,420		
12. 사무용품비	658,250	3. 잡손실	209,040
		VI. 법인세차감전이익	7,649,200,288
		VII. 법인세 등	0
		VIII. 당기순이익	7,649,200,288

위와 같이 공고함
2009. 3. .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 光 洙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관악언론인회 文昌克회장

(중앙일보 대기자)

“신참 언론인 초청 ‘호프데이’ 개최”

중앙일보가 최근 베를리너 관형으로 과격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일보 文昌克(정치68-72) 대기자가 지난 2월 관악언론인회 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의 생각과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일년에 한 번 모이는 관악언론인회(이하 관인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난 3월 19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 여러번 고사하셨지만 결국 회장직을 받아 들이셨어요.

“선배들께서 맡겨 주신 일을 너무 빼는 것도 도리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 모교 발전위원회 모임에 나가 봤는데, 참 많은 분들이 모교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거액을 쾌척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내가 너무 모교를 잊고 살았구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직분으로라도 봉사를 할 수 있게돼 다행으로 여깁니다.”

— 관인회 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언론인들이 바쁘다 보니 모임을 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재정도 열악하고요.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4월 중에 신참 언론인들을 초청해 ‘호프데이’를 열 생각이에요. 언론계는 소속된 언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후배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시간을 만들려고요. 또 기회가 되면 모교와 논의해 재학생들을 위한 언론관련 실무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타 대학은 이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 서울대 언론인까지 모이냐는 힐난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팔팔 뭉쳐서 끌어주고 당겨주는 차원의 모임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동문들 자체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모임은 모교와 총동창회가 이 나



라 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하도록 힘을 보태고, 다른 매체에 종사하더라도 바른 언론인의 길을 가도록 서로 복돋아 주는 역할을 하려고요.”

— 중앙일보가 관형을 바꿨는데 반응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잘 정착해서 성공할거라 봐요. 요즘 전반적으로 신문사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회사가 따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싶어요.”

— 나중에 모교에서 부르면 갈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요.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게 마지막 꿈인걸요.”

— 신입생들에게 특강을 한다면.

“하루 하루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루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인데, 그 하루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또 서울대생들은 현실의 냉혹함을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요.”

한국의 대표 언론인으로 손꼽히는 文昌克동문은 194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자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모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논설실장, 주필 등을 역임하며 한국언론상, 삼성언론상, 서울대 언론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외부활동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15대 회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미 갈등의 해부’, ‘미국은 살아있다’, ‘문창국 칼럼’ 등이 있다. 입사동기인 부인 채관숙 씨와 사이에 세 딸(장녀 결혼)을 두었다. 남들이 모르는 코스를 발견해 매주 부인과 청계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긴다.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로 중앙일보 李御摩(국문52-56)상임고문의 입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南〉



徐桂淑회장(좌로부터 네 번째)과 장학생들

음악대학동창회

65학번 동기 기금 출연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는 지난 3월 9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 ROOM201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宋元淑·裴德潤·梁海曄·安龍基원로동문, 모교 安亨一·李仁榮·李基媛 명예교수를 비롯해 徐桂淑회장, 모교 음대 鄭台鳳학장 등 70여 동문이 참석해 우의를 다졌다.

徐桂淑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장학금 수여식 등의 1부와 공연, 만찬, 경품추첨 등의 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창회는 올해도 회장단 회의, 분기별 골프대회, 회보 발간, 장학 사업 등에 3천6백여 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徐桂淑회장을 재선출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성악, 기악 등 각 학과별 전공 학생 5명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특별히 이날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65학번 동기회(회장 尹美容)가 1천1백여 만원을 모아 동창회 기금으로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모교 음대 남성중창단의 합창 노래로 문을 연 2부는 숙명여대 작곡과 崔承俊(작곡65-72)교수의 미술쇼와 만찬이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徐桂淑회장을 비롯해 여러 임원들이 푸짐한 경품을 협찬했다.

인문대학동창회

홈페이지 개설

인문대학동창회(회장 朴孟浩)가 최근 홈페이지(www.snuha.or.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동창회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공지하고 동문 및 모교 소식을 알리는 동창회 소식란, 동문 참여마당, 각 입학 학년별로 운영될 동문 사랑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인문대 특별과정을 포함해 인문학을 전공했던 동문이라면 누구나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모든 메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동창회에 이런 일이...

4·5 월 행사 캘린더

4월 15~17일 오후 4시

• 보건대학원 개원 50주년 행사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외
(문의 : 740-8878)

4월 27일(월) 오후 6시30분

• 금속공학과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서초동 타워차이
(문의 : 877-2808)

4월 16일(목) 오후 6시

• GL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문의 : 6000-6520)

4월 28일(화) 오전 7시30분

• AM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문의 : 880-6912)

4월 17일(금) 오후 6시

• 화학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방배동 팔래스호텔
(문의 : 877-3048)

5월 5일(화) 오전 10시

• 상과대학동창회 산학대회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
(문의 : 761-2278)

4월 25일(토) 오전 10시30분

• 생활대학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880-1453)

5월 15~16일 오전 10시30분

• 행정대학원 개원 50주년 행사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
(문의 : 880-5601)

4월 26일(일) 오전 9시30분

• 사범대학동창회 등산대회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6399-6500)

5월 16일(토) 오전 10시

• 농생대학동창회 상록의 날
모교 관악캠퍼스 75-1동
(문의 : 6300-8630)

상대 17회 산악회

‘백두대간 종주기’ 출간



상대 17회 산악회(회장 金崇子)는 지난 3월 3일 서울 강남 한 음식점에

서 ‘白頭大幹-지공들의 좌충우돌 종주기’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백두대간 종주기의 주인공들 30여 명이 참석해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金崇子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2004년 12월 11일 백두대간 첫 구간에 발을 디뎠 2008년 10월 11일 마지막 구간까지 성공적으로 종주를 끝내고 그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모두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3년 10개월에 걸친 긴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간에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고희의 나이에 3년 10개월 동안 1천6백여km의 대간을 쉼 없이 걸어난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77개 구간을 올라 책도 77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朴定樹동문의 부인인 盧順玉(미학68-72)동문이 산행기자로 동참해 글을 쓰고 金種男동문이 사진을 찍었다. 17회 동기회 裴正運(한국철강신문 대표)회장은 책 편집과 출간을 지원했다. 〈南〉

모교 초일류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10억원 출연

동문록 찾아서

尹 鍾 龍 모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IT 마법사, 미스터 크라이시스, 카오스 메이커, 경영의 달인, 대한민국 대표 CEO, 대기업 최장수 CEO,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25인' 중 1위.

尹鍾龍(전자공학62-66)삼성전자 상임고문을 일컫는 수사들이다.尹고문을 '서울대 동창회보'가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9층 집무실에서 2시간 동안 短問에 長答 혹은 '단문 단답'이 반복됐다.

대 담 : 본보 李相起는설위원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여기 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고 민하다 소통을 하면 될 거란 마음으로 왔습니다.

“소통이란 말은 하수구 막힌 것 뚫는 게 소통이죠. 왜 소통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 선배님의 인생관과 발자취, 앞으로의 미래 비전 등을 듣는 거니까.., 까칠한 건 끝에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李기자가 한겨레신문식으로 취재할 것 같아서..”

인터뷰가 이어지면서 그는 아내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 오늘 아침 몇 시에 사무실 도착하셨어요.

“늦게 왔어요. 보통 때는 8시 전에 오지만 요즘은 일이 없으니까 나오고 싶을 때 나와요.”

—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뭘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즐겁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요.”

— 삼성에서 청춘을 바치고 지금도 그러시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이 평가해 줘야지,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42년간 한 평생을 삼성에서 후회 없이 일했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12년 정도 총괄 CEO를 맡긴 힘들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젊은 직장인들의 롤모델이신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현재를 위해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재 육성, 기술개발이 중요한 과제였죠. 우선 오늘, 금년이 있어야 내년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위기고, 안 될 때는 잘 안되기 때문에 위기라고 늘 생각했죠.”

— 잘 될 때도 위기다?

“잘 안 될 때는 모두 긴장을 하니까 괜찮지만, 잘 될 때는 방심을 하게 돼 방만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 대비를 못해요. 많은 기업들이 최고로 이익을 낸 다음 해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 현재 우리 경제사정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죠.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물론 미국에 많은 부분 기인하지만, 왜 일어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론적인 이야기지만, 현장을 40년 이상 지키셨으니까 오히려 학자들보다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나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0년 동안 고속성장에 오던 기운과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내버려두고 오직 기업지배구조만 갖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여의도 군상들, 용산 갔다가 청계천 갔다가 1년을 낭비했던 그 사람들 지배구조를 보십시오.”

필자가 윗도리 왼쪽 윗 부분을 가리키며 ‘배지’들 말씀이냐고 했더니,尹고문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시민단체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죠”라며 시민단체에 대해 비판을 해갔다. 이즈음 “담배 좀 피우겠다”며 ‘에세’ 담배를 입에 가져갔다.

“실은 나도 참여연대, 한겨레신문 좋아해요. 고려대 張夏成교수(그는 소액주주를 대신해 삼성전자 주총을 13시간 이상 끌고 간

서울대 총장 꼭 모교 출신이어야 하나?

“순혈주의 버려야 모교 발전 있다”

확 꺾였거든요. 1960~70년대 개발연대를 민주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지만 라인강의 기적과도 비교가 안돼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1차년도에 국민소득이 90달러 정도에서 1996년 1만 달러, 2008년 2만 달러이니 40년만에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2백여 년에서 1백여 년 앞서 산업화를 한 미국, 영국, 일본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된 게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오던 기세가 지난 20년 동안 이념갈등 등의 문제로 서서히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윤리관, 지배층의 역사인식, 법과 제도 등의 사회지배구조는 인류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 발명되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가진 사회라도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부족하고 폐쇄적이고 불공정, 불투명한 사회지배구조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종교단체, 학교도 지배구조가 있고 시민단체도 지배구조

적도 있다)하고도 얼마나 친하다고요. 학장 돼서 강의를 부탁해 특강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는 그가 화제를 바꿨다.

“우리 기업들이 대단합니다. 미국 자동차 ‘빅3’가 다 저런데,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WBC에 출전한 야구선수들, 김연아 선수 보십시오.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우수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나 사회나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을 꿈과 비전이 없어요.”

— 국민적인 에너지가 한데 모아져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없어 보이죠. 후손들을 위해 뭘 해야겠다는 걸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이 열심히 일할 때만 해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일류가 되려면 일류를 따라가면 된다, 그게 달성되고 난 후에는 초일류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타깃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할거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게 42년간 삼성전자 재직 중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66년에 입사했는데, 삼성전자가 만들어

진 게 69년 1월입니다. 당시 금성사, 대한전선, 동남전기가 있으니까 정부가 너희 제품은 국내 판매하지 말고 전량 수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작회사를 만들려고 미국, 유럽 업체들을 찾아다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일본의 산요(三洋)전기, NEC와 합작을 했어요. 당시 산요 반도체공장에서 4개월, TV공장에서 4개월, 그 뒤 미쓰비시 갈라 TV공장에서 6개월 연수를 받았어요. 세 번 받으면서 느낀 것은 내 세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겠다고 확신했어요. 81년 VTR사업본부장을 맡았는데, 이 분야가 워낙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일본에 가서 VTR공장을 견학하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면서 사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기술도, 돈도, 기술자도 없고. 그때는 아날로그시대인데 기술의 축적, 경험의 축적, 근면성이 아주 중요했죠. 아날로그시대에서는 10년 떨어진 것은 아무리 열심히 따라잡으려 해도 격차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어제 일을 기억하듯이 상황설명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갔다.

“디지털시대로 오면서 그게 바뀌었죠. 창의력을 갖고 스피드 있게 하면 갈 수 있었죠. 우리는 IMF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고, 당시 일본은 버블 붕괴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구조조정을 적당히 하고 넘어갔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방심하고 자만했죠. 잘 될 때가 위험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죠. ‘아날로그시대에 10년 차이 나면 그 격차를 잡을 수 없지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디지털시대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두뇌와 창의력, 스피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90년대부터 준비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반도체 등에서 일본을 앞서나가기 시작했죠. 핸드폰도 아날로그 때는 모토로라가 석권했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고가전략을 펴 모토로라도 따라잡았고요. 그 다음에 LCD, PDP를 세계 일류로 만들자고 해서 디자인, 성능 모든 면에 심혈을 기울여 소니를 앞섰잖아요. 40년 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뤘습니다.”

— 선배님 세대에 일본을 제쳤군요.

“그렇죠. 소니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 관리—개발, 구매조달, 생산, 물류, 판매 등 전체 공급망을 말함)을 잘 구축한 일입니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전산망으로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가 톱클래스입니다. 독일의 SAP사 것을 쓰는데 12~13년 동안 3조원 정도가 들었어요. 소니가 삼성전자를 벤치마킹해 이제 그것을 알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 계단 밟듯이 때로는 성큼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가기도 했겠지요. 그 와중에 좌절도 겪었을 것 같고요.

“맞죠. 예를 들면 1·2차 오일쇼크, 그 다음에 IMF 님을 때는 정말 망하는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설립 전부터 기획하던 사람이 7~8명 있었는데 저 혼자만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늘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

☑ 남았죠. 사원시절 당시 수원 공장부지 사진 찍고 물 뜨러 다니고 했는데 총괄대표를 맡아 ‘내가 물 말아먹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해보고 망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공장을 매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죠. 그때가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인터뷰가 1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화제를 돌렸다.

— 좌우명이 혹시 있으신지요.

“正心, 誠意, 忍耐, 感謝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성을 다하며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하기는 참 어렵죠.”

— 집무실 들어오는데 ‘格物致知’라고 적혀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공계 출신 CEO인 고문님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격물치지지를 아시네? 저거는 하나의 도구고요. ‘大學’의 정수가 격물치지입니다.”

20평 남짓 그의 집무실에 클린턴 미국 前대통령, MS의 빌게이츠 회장, 영국의 토니 블레이어 前총리, 그리고李明博대통령 등과 찍은 사진이 ‘한국을 빛낸 엔지니어 60인’ 선정 기념패와 함께 진열돼 있다. 또 높이 2m, 가로 8m 책장과 책상 위에 책이 빼곡이 꽂혀있다. 일본어판 ‘現代電氣辭典’이 눈에 띈다. 얼른 봐도 3백권은 넘을 듯하다. 그는 “집에는 미술, 역사 관련 책이 많고 여기는 회사, 경영, 경제 관련 책이 많다”고 했다.

— 최근에 읽고 계신 책은.

“‘부의 탄생’과 중국 화교가 쓴 ‘화폐의 전쟁’을 읽고 있어요. 요새는 경제와 산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그것으로 인해 변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산업사와 경제사 분야 자료들이 많아요.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 요즘 성적 좋은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가 공대에 가는 게 속상하죠.

“지금 의대에 간 학생들은 졸업할 때 되면 의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돼 취직자리도 많지 않을 거예요. 쉽게 돈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졌지만 요즘은 개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거의 하지 않습니까. 영상기계가 대다수죠. MRI, 울트라 소닉, CT 등 그런 장비를 개인 병원이 갖추기 힘들죠. 그렇다고 종합병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미술 관련 친목 모임, 신작회 멤버시죠.

“어제 저녁에도 인사동에서 黃昌圭(전기 공학72-76)사장 등과 저녁 6시부터 소주 마시고 그랬어요. 신작회 회원 18명인가 왔어요.”

— 인상과 그림을 좋아하신다고요.

“추상화는 우리같이 옛날 사람들 보기엔 부담이 가죠. 고흐, 마네, 모네, 르노와르 등 인상과 작가들의 그림이 좋은 게 많아요. 파리에서 니스 가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프로방스 지역이 있는데 늦은 봄에 가면 전체가 노란색이에요. 보리와 유채꽃이 만발하죠. 구름같이 구불구불 그대로 있어

요. 그런 것을 보고 그리니 고흐의 ‘삼나무가 있는 보리밭’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휘어 있는 것 같고요. 빛의 변화와 프랑스 지형을 이해한다면 그게 참 사실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 동창들과는 자주 만나십니까.

“동창들과는 자주 못 만나요. 바쁘다보니까.”

— 자제 분이 유명 탤런트죠. (윤태영·드리마 태왕사신기 출연) 후원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데, 맡겨야죠. 집안에 그런 소질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일은 본인이 조금 못해도 여러 사람과 같이 해 가면 되지만, 이 직업은 자기가 뛰어나지 못하면 성공 못 하잖습니까. 기질도 있어야 하고요.”

— 그런 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너지 이념갈등으로 흩어져

지도자층 출선 수범해 위기 극복해야

부가가치가 무한대로 갈 수 있고요. 이를테면, 외국의 유명 배우를 초청하려면 개런티를 엄청 줘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조기업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CEO 윤종용’이란 책에 보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고문님이 한 챗터 돼 있더군요.

“삼성에 영상사업단이라고 있었어요. VTR사업을 하면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느껴 진출한 사업이죠. 삼성전자에서 하긴 무리고 당시 스타맥스란 회사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외국에서 구입해 더빙해서 팔고 하다가 삼성 영상사업단으로 넘겨졌죠. 영화 ‘쉬리’라고 있었죠? 당시 영화 한 편에 7억, 8억 드는데 그 영화가 13억원인가 들었어요. 삼성에서 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마케팅해서 성공한 케이스죠. 국산 영화(제작시스템)의 터닝포인트가 됐죠.”

다시 화제를 돌렸다.

— 상당히 엄하신 편이죠.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 동창회나 모교 등에 거액을 기부하셨던

데, 일정하게 기부하는 곳이 있습니까.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과 회장을 맡으면서 초·중·고교에 매년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년에 2천만원 정도 수준일 겁니다. 지난번에 모교 초일류 인재육성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시드머니로 10억원을 냈고요. 목표가 5백억원이라고 합니다.”

— 큰 금액이군요.

“나에게는 큰 돈이지만 서울대학교에는 큰 돈은 아니죠. 10억원 정도 내고 뭐... 李長茂총장과 차吾銖교수는 나중에 더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웃음)”

— 모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모교가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이 발전하려면 좋은 학생, 좋은 교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가 좋

늘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했다가는 큰 일 난다는 거죠. 교수가 많은 단과대학이 항상 유리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尹교수는 “미국 같으면 본교 출신 교수가 30% 이내인 것이 불문율이며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혼혈사회이기 때문에 비비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필자에게 “비비는 것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입사 동기 중에 A가 과장이 되면 B는 며칠씩 회사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같은 동문들만 모이면 그렇게 되고, 고참 교수들이 신입 교수들 일 다 시키고 자기는 안하고, 서로 평가가 안 되잖습니까. 혼혈이 안 되면 민족이든 회사든 국가든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꼭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출신 가운데서만 나오란 법은 없잖아요? 다른 곳에 좋은 사람 있는데 직선제하면 들어올 수가 없죠. 순혈주의를 버려야 모교 발전이 있습니다.”

—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지요.

“모르겠어요. 바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고 좋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분들은 농경사회 속에서 성장해 농경사회 마인드를 갖고 있어 생각이 많이 달랐죠. 가능하면 과거를 부정하고 살았어요. 인정하면 따라가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니까요.”

—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사회 위기의 진단 그리고 처방을 좀 내주시죠.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가 지금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 사고방식, 룰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통합인데 모호한 말이죠.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사회통합을 해야겠죠. 여의도의 군상들, 저들이 앉아서 저러는 한 되질 않죠.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해야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시야도 좁고 정보도 적었지만 욕을 얻어먹더라도 바른말을 하려고 했죠.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지 시민단체, 일반 여론, 정치권 눈치보고...;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합니다. 역사발전은 도구발명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온 겁니다. 인문학자, 사회학자들은 사회제도가 어떻게 그러는데, 경제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盧武鉉 前대통령이 핸드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대통령 됐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날 보고 삼성이 핸드폰 잘 만 들어 대선에서 졌다고 그러더군요.”

그는 골프는 핸디 12 정도인데 요즘은 그렇게 못 친다고 했다. 인터뷰가 어느새 두 시간을 넘긴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 제2의 인생을 사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젊은 때는 본래 철학, 물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밥 먹지 못할 것 같고 또 수리적인 머리가 모자라서 그만뒀어요. 다시 하더라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현장혁신의 리더, ‘CEO 윤종용’다운 마무리였다. <사건=李五峰논설위원·정리=金南柱기자>

작년 5월 제자들이 白壽기념 행사 마련

“한국음악을 평생 연구하다 보니 학술상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문화훈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功名心を 버리고 오로지 국악에 관한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푸느라 1백살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작년 5월 고맙게도 제자들이 ‘白壽 頌祝嘉會’를 열어주고 1천60쪽에 달하는 송축논문집을 선물해줘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음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모교 국악과 명예교수인 晩堂 李惠求(경성제대 26 - 31)옹은 일생동안 한국음악을 서양음악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음악학의 아버지로 존경받아 왔다.

올해로 만 1백세가 된 李惠求옹을 만나기 위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물씬 풍기던 3월의 어느 날, 그의 자택을 찾았다.

조금은 불편한 몸 때문인지 기자를 배려하고자 컴퓨터로 정리한 두 장 짜리 회고록을 건네줬다. 그의 지나온 세월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하루 일과를 물어보니 특별한 것은 없지만, 하나하나 공들이는 시간이 많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밤 꺾어진 머리를 풀어줘요. 그리고 TV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잘 들을 수 없다. 그래서 TV는 주로 헤드라인이 나오는 뉴스와 자막이 있는 외국 드라마 그리고 스포츠를 즐겨 본다.) 11시에 아침을 먹은 뒤 2시간 동안 일간지 2개를 정독해요. 그리고는 2~3시간 동안 논문을 집필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후 6시쯤 저녁을 먹은 뒤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죠.”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인 李惠求은 4남매 중 막내다. 셋째 형님 덕분에 그는 톨스토이와 같은 대가들의 원작소설을 원 없이 탐독했고, 중학교 때 바이올린을 접했으며 대학시절엔 관현악단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비올라 연주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비올라 연주자

“암울했던 일제시절을 보내다 보니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 영문학을 좋아해 경성제대 문학과에 입학했는데, 졸업하니까 취직이 안되더라고요. 1년간 백수로 지내다 경성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모집공고를 보곤 덜컥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당시 일본방송만 틀어주니 누가 방송을 들어요. 그래서 한국방송을 편성해 음악·연예담당자로 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李惠求은 자연스럽게 한국 전통음악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일에 몰두하게 됐다. 그는 방송에 洪蘭坡선생을 불러들여 관현악단을 만들었고, 방송에서 창작가요가 흘러나오도록 했다. 당시 천시받았던 한국 음악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 것도 그였다.

1943년 생애 첫 학술논문인 ‘梁禁新調의 四調에 대해서’를 발간했는데, 이 논문이 일본 음악학자의 눈에 띄었다. 일본 음악학자의 환갑기념논문집인 ‘동아음악논총’에 그의 학술논문이 실리면서 국악에 대한 세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고악보를 해석하고 그 관계를 규명



학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때 외국의 저명학자들을 만나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자신이 출판한 책을 증정할 수 있었다. 1959년 모교에서 한국음악 학위논문으로는 첫 박사학위를 받은 李惠求은 그 해 3월 모교에 국악과를 창설했고, 1970년 모교 음대 학장 시절엔 교수들의 연구능력 향상에 헌신했다.

“교수가 수험생들의 개인레슨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공연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정례 교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휴식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내빈들과 친교를

하는 등 문화사 측면이 아닌 이론자체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사람이 쓴 개론서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1947년 9월 모교 예술대학 음악부 교수로 부임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첫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14년이 흐른 1957년, 드디어 첫 저서인 ‘한국음악연구’가 출간됐다. 이를 출간하는 데만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논문 집필할 때 가장 행복”

“처음에 출판사에서 한국음악 책은 안 팔린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서울 대에서도 조관비를 준다고 해도 또 거절하더군요. 세 번째에 아세아재단에서 종이값을 대준다고 하니 겨우 출판승낙을 하더군요.”

이듬해 그의 연구가 빛을 발하게 되면서 뜻밖에 한국인 최초로 여러 국제음악

나눌 수 있는 거든파티를 준비하는 등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교에서 정년퇴임 한 후에도 그는 20년 가까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다. 국악의 이해와 계몽에 앞장서며 한국음악 문화의 창조적인 기틀을 세우는 데 평생을 바친 李惠求의 계획은 현재 보완 중인 논문집을 하루빨리 출간하는 일이라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부탁하자 “허욕에 들뜨지 말고 착실하게 각자 좋아하는 일에 한 우물을 파라”고 답했다.

오늘도 李惠求은 가장 행복한 시간인 논문 작업을 하면서 혼자말로 이렇게 되뇌는다.

‘해는 저물어 가고, 모르는 것은 많이 남았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마음이 급하다. 그것은 늙은이의 탐욕일까?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인간인가 보다.’

(表)

(주)바이로메드는 지난 1996년 국내 최초의 벤처회사로 출발해 200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국내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승인을 세 번이나 받은 유일한 기업으로 현재 총 7개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단계에 있는 제품은 4개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모교 자연대 생명과학부 교수인 바이로메드 金善榮(미생물74-78)대표는 “우리회사의 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을 보여주면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들도 놀란다”며 세계적인 신약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제적 연구성과 인정받아

바이로메드의 선도제품인 심혈관질환 치료제 신약후보물질(VM202)은 미국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 지체질환(족부궤양),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3건이 진행되고 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미국 존슨앤존슨 그룹과 공동개발 계약도 체결해 대형제약사와 선진국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개발에 임하고 있다.

“요즘은 항암보조요법에 쓰이는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VM501을 블록버스터형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개발을 완료한 암치료 백신도 곧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신개념의 치료제 개발로 세계 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이끌어가는 바이로메드 제품의 시장규모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조사 기관에 의하면 바이로메드가 선점 가능한 심혈관치료제 시장은 약 3조원, 이를 이용한 약물 스텐트가 최소 5조원, 혈소판 관련 치료제가 약 4조원, 유방암치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바이로메드 건물

심혈관질환 의약품 개발의 선두주자

료제는 약 5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모두 혁신적인 신약이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의약품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시장 장악력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로메드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관련 기술은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학술논문의 형태로 잘 정리돼 있으며 여러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가 게재된 것 또한 큰 장점이다. 또 코스닥 진입 이전에 이미 1천만불 이상의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회사에는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동문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오 신약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인재 확보와 유지가 특히 중요한데 저희는 많은 인력을 확보한 셈이죠. 또 많은 벤처기업이 이직과 퇴직이 많은데 비해 우리 회사는 이직, 퇴직이 극히 드물어 꾸준한 신약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가 곧 기업의 재산이라는 金대표는 미국의 우수 로펌과 연계해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바이로메드는 코스닥 등록기업 중 가장 많은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金대표는 “회사의 뛰어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12년 동안의 연구·개발 결과



金善榮대표

(주)바이로메드

현대에 들어와서 거세게 진보하고 있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소재로 미역·다시마에서 추출한 해조추출물인 후코이단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세계의 학계와 건강식품업계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후코이단은 지난 1996년 제55회 일본 암학회에서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세포의 자살유도(Apoptosis) 능력이 있다고 발표되면서 암환자가 많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후코이단과 관련된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오게 됐다.

또 헤파린이라는 성분이 혈액의 응고를



成浩濟대표

한국후코이단

합니다. 후코이단과 시너지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간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 지금도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죠.”

한국후코이단 제품은 현재 전국의 암전문병원을 비롯한 대형종합병원 내 건강매장과 약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연중 24시간 상담팀을 두고 있으며, 고객 불만사항을 발빠르게 해결해 주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펄후코이단 골드”는 ISO9001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암환자들로부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핵심성분인 후코스와 황산기 함량 및 순도 면에서 가파르게 올라 상승효과가 있는 부원료를 조합해 야심찬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역시 다양한 종류의 암투병 환자에 대한 임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암투병 환자에 좋은 효과

건강유지 차원에서 먹을 수 있는 보급형 제품인 ‘성호제 후’는 일본과 미국의 제품과 혼돈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믿음’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한국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고.

“현재 일본은 2천억원 규모의 후코이단 제품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한국후코이단 제품이 더 뛰어난 품질과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역으로



펄 후코이단 3종 세트

건강식품 신소재 ‘후코이단’ 생산업체

막아주는 성분과 구조 및 생리활성이 유사해 혈관계 질환에 대한 논문도 다수 소개됐으며, 위 속 헬리코박터가 좋아하는 황산기 성분이 후코이단에 들어 있어 소화기 전문 의사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비한 물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초로 후코이단 대량추출에 성공,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후코이단(대표 成浩濟 도시공학89-93)은 그동안 다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의사와 한의사들과의 학회 활동 및 임상 참여를 통해 후코이단의 체험적 결과를 축적해 왔다.

해조류·천연원료로 구성

한국후코이단(koreafucoidan.com)의 주요제품으로는 분말제품인 ‘펄후코이단 골드’와 ‘성호제 후’ 그리고 액상제품인 ‘펄후코이단’ 등이 있다.

“철저한 위생처리와 품질관리로 가공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맛을 내거나 방부 역할을 위한 첨가물까지 천연원료만을 고집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모교 역도부 출신들의 모임인 ‘역우회’ 총무를 맡고 있는 成浩濟대표는 대학시절의대 역도부 선배들과 음식 및 건강식품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한 덕분에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특히 일반인에게 공부만 하는 나약한 몸의 서울대생 이미지를 바꿔주기 위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전문서적들을 독파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니버시티 및 미스터 코리아대회에 출전해 무려 9개의 입상 트로피를 받은 진정한 ‘몸짱’이기도 하다.

소비자와 환자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후코이단 제품을 아침저녁으로 한 스푼씩 먹는다는 成浩濟대표는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더 나은 제품개발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후코이단의 흡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성분을 찾아내 이를 조합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表)

신입생 3천2백29명 입학

“사회의 어려운 이웃 보듬기를...”

본회서 시집을 축하선물로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李長茂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金明煥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미술대학 조소과 柳熙園양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겠다”며 학부생 3천2백29명을 대표해 신입생 선서를 했다.

李長茂총장은 식사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성과 소양을 키우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며 “성찰적 지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부단한 지적 훈련을 넘어 고고한 독선이 아닌 남과 더불어 바르게 사는 겸손의 마음이 집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만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을 위해 멘토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동반자 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따스히 보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교 경제학부 趙淳(상대전문46-49) 명예교수가 축사에서 “전공 여하를 막론하고 저학년 시절에 동서고금의 지혜를 흡수해 지성을 기르고 여러분 스스로와 나라의 갈 길을 찾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격려의 말을 덧붙였다.

이날 추가로 음대 성악과 朴賢宰교수가 ‘그라나다’를 불렀으며 음대 관악협주단이 쇼스타코비치의 행진곡을 연주해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2009학년도 신입생은 총 3천2

백29명으로, 정원 내 합격자 3천2백46명 중 3천1백13명이 등록했으며 정원 외 합격자 1백21명 중 1백16명이 최종적으로 등록했다.

올해도 다양한 신입생이 눈길을 끈 가운데 뇌 중추신경에 손상을 받아 보행이 힘든 정원희(경영학)양이 정시모집에서 당당히 모교에 입학해 화제가 됐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 대학문헌상 수상작을 모은 시집(그 해 여름 안에서의 이별)을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입학식 가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金建植)은 지난 3월 2일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원식 및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金建植법학전문대학원장, 金正國법대동창회장을 비롯해 신입생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金建植원장은 식사에서 “법학대학원 개원에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과 특별히 새 법학도서관 건립에 큰 도움을 주신 SBS 尹世榮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입생들에게는 “오늘의 영광을 축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분발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스페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모교 李長茂총장(左)이 金鍾燮회장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삼익악기·스페코 金鍾燮회장

모교 발전기금 20억원 쾌척

(주)삼익악기 및 (주)스페코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이 지난 3월 23일 모교 李長茂총장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으로 20억원을 쾌척했다.

金회장은 “스페코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일을 하고자 모교에 기부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스페코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처럼 모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



법인화 공청회... 연구보고서 발표

“교육·연구수준 세계 10위권 목표”

모교 법인화위원회(공동위원장 金信福·朴聖炫)는 지난 3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법인화 공청회를 열고 ‘서울대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법인화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조찬모임을 갖고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수 연

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林光洙회장은 조찬모임에서 “일본 도쿄대의 경우 처음에 정부안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도쿄대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잘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화가 성공한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법인화 공청회는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李南麟교수(철학81졸)의 사회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朴聖炫교수(화학공학64-68)는 개회사에서 “오늘 열린 공청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인화의 목표에 관해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획기적 혁신과 창조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 교육 및 연구 수준이 세계 10위권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金尙均(사회사업66-70)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평의원회 학사위원장 李俊圭(물리67-71)교수, 교수협의회 기획이사 李哲洙(법학78-82)교수, 서울대 공무원노동조합 裴珍珠위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黃仁鶴상무, 중앙일보 吳林泳(외교80-87)국제부장, 본회 朱成民(법학69-73)감사, 총학생회 朴鍾赫(경제05입)회장 등 7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명이 참석했다.

동반자사회 프로그램은 ▲SNU 멘토링 ▲미경력자 인턴십 ▲경력자 재교육 ▲경력자 활용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보로 3월 30일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적극적인 참여 속에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의 선순환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위원장인 공대 金亨俊교수는 “대학은 사회와 함께 하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변화를 창조하는 지식공동체로 이번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출발식에서는 프로그램별 간단한 소개 및 모교 생활 안내가 이뤄졌으며 행사 후 李長茂총장은 참가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榮)

동반자사회 프로그램 출범

경제위기·사회양극화 극복

모교는 지난 3월 25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동반자사회 프로그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을 비롯해 李永熙(행정61-69)노동부 장관, KC코트렐 李達雨(전기공학48-53)회장, 미래국제재단 金鮮東(화학공학59-63)이사장 등 학내외 인사와 SNU멘토링 재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2백여

학생참여 발전기금 1천여만원 매칭펀드로 지정사업에 사용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 이하 발전기금)이 교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학생 작은참여 모금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1천1백61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10배의 금액을 투자해 매칭펀드를 구축했다.

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꼽은 장학금 확충, 도서관 첨단화, 봉사·문화활동 등 5개의 모금사업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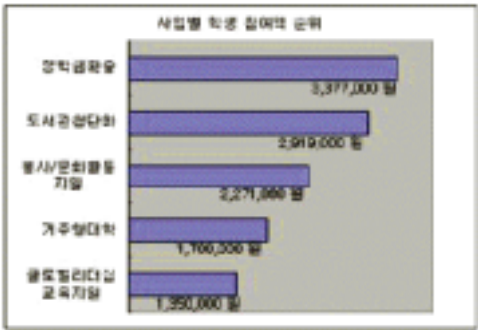
이번 모금캠페인을 통해 재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장학금 확충, 도서관 첨단화, 봉사·문화활동 지원, 거주형대학, 글로벌리더십 교육지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참조〉또 단과대별 학생 참여액은 인문대, 공과대, 자연대학 순이었다.

발전기금은 재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정된 장학금 확충을 위해 ‘후배사랑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학부 신입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가계 형편이 어렵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사회봉사 정신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로 운영될 예정인 모금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리더십 교육지원 사업(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봉사·문화 활동 지원사업(조성된 기금을 관악구내 저소득층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문예 동아리들의 공연에 지원하는 방안을 학생과에

서 검토 중)

발전기금은 앞으로도 캠페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집행 과정을 학생 기부자들에게 수시로 보고해 학생들이 기부한 금액이 지정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부



를 통해 발전해가는 캠퍼스와 다양해지는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옥스퍼드대에 장서 기증 프랑스 대학과 교류협정

영국을 방문한 李長茂총장은 지난 3월 17일 옥스퍼드대에 한국학 분야 장서 4백여 권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에는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장서인 ‘동여도(김정호의 조선지도)’ 사본 등이 포함돼 있다. 기증 도서들은 세계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옥스퍼드대 보들리언 도서관에 보관된다.

한편 모교 李長茂총장은 3월 21일까지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NS), 에콜 폴리테크, 파리 공대 등 3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연구, 자료교환, 학생교류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榮)

그 4월이 오면 金致浩가 그리워진다

오는 4월 17일 모교 관악 캠퍼스 두레문예관 앞 4·19 공원에서 4·19혁명 49주기를 맞아 표지석 제막식이 열린다.

4·19 희생자인 金致浩동문의 벗인 金夏鎭동문이 그 날의 기억을 담아 추모의 글을 보내왔다.



金致浩동문

또 한 번의 4·19가 다가온다. 4월 20일이 되면 그리운 친구 金致浩군과 영원히 헤어진 지 49년이 되는 날이다. 그 때 우리는 문리대 수학과 3학년 학생이었다. 마로니에 그루터기 옆 벤치나 짙은 초록의 잔디에 앉아 많은 얘기를 나누며 꿈을 엮던 동갑내기였다.

1960년 4월 19일(화)은 아주 맑은 날이었다. 1교시에 수업이 있어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났다. 전날 고려대에서 데모가 일어나 사고로 번졌다는 소문이 퍼져있어서 인지 교정은 어수선했고 정문 앞에는 많은 학우들이 모여 데모를 시작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방을 던져 놓고 데모에 합류했고 경찰을 향한 투석이 시작됐다. 진압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경찰은 몇 명의 부상자와 함께 바로 물러났다.

우리는 연건동 사거리에 도달했을 때 법대생들과 합류해 제법 큰 무리가 됐고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 4가로 향했다. 동대문경찰서 앞에 도달한 우리는 독 안에 든 쥐였다. 많은 학생

들이 골목으로 혹은 담장을 넘어 피신했다. 경찰봉에 허리를 맞은 나는 쓰러져 길을 수 없었고, 피를 흘리고 있는 형편이라 金致浩군이 부축해서 보건진료소(당시에는 의대 뒤 함춘원에 있었음)에 눕혀 놓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다. 그 길로 그는 효자동 경무대로 가서 데모대의 맨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다 총탄을 맞았을 것이다.

4월 17일 모교서 표지석 제막 예정

당시 보도에 따르면 건춘문 앞의 수도육군병원(곧 현대미술관이 될 자리)에 총상으로 입원했는데 나이 어린 고등학생에게 수술을 양보하다 출혈이 심해 결국 유명을 달리했고 끝까지 의연했다는 군의관의 발표였다. 이는 그의 죽음의 고결함과 의로움에 당시 모든 국민이 그의



金致浩동문의 추모비문이 새겨져 있는 관악 캠퍼스 4월 학생혁명기념탑

죽음을 몹시 아쉬워했다.

金致浩군은 장로 아버지, 권사 어머니 그리고 장로 형님들을 모시고 살았다. 그는 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하는 지를 일찍 체득했을 것이다. 4월 학생혁명기념탑에 새겨진 그의 수첩 마지막 메모인 ‘나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려다’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갖게 한다.



金夏鎭
(수학58 - 62)
아주대
명예교수

정년교수 프로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31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2월 27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容德교수·동양사학	(사학63-67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7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일본사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국제대학원장, 일본사학회 회장, 역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泰秀교수·철학	(철학63-67) 69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독일 괴팅겐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서양고대 철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인문대학장·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李泰鎭교수·국사학	(사학61-65) 69년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정치·사회사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인문대학장, 역사학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趙顯泰교수·종교학	(종교62-66) 79년 성균관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유교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인문대학 종교문제연구소장·종교학과장, 한국종교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鄭在明교수·수리과학	(수학61-65) 68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0년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에 부임해 대수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수학과장 등을 지냈다.	 宋榮培교수·철학	(철학63-67) 69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8년 모교에 부임해 중국철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동양철학회장, 국제유교연합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閔弘植교수·전기공학	(전자공학62-66) 71년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전자공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전기공학부장 등을 지냈다.	 李鏞德교수·전기공학	(물리62-66) 7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明彦교수·화학	(화학63-67) 7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생화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화학과장·화학분자공학연구단장·화학공동체 기금관리위원장 등을 지냈다.
 李弘熙교수·화학생물	(화학공학62-66) 71년 미국 퍼듀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2년 모교에 부임 후 나노공정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장·응용화학부장·섬유고분자공학과장 등을 지냈다.	 金道然교수·재료공학	(재료공학70-74) 79년 프랑스 클레르몽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주대 조교수를 거쳐 82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공대 학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李錫浩교수·컴퓨터공학	6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82년 미국 텍사스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 후 컴퓨터공학 데이터베이스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중앙도서관장, 한국정보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朴官和교수·농생명공학	(농화학62-66) 76년 독일 칼스루허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탄수화물 효소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식품공학과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국제식품과학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柳寬熙교수·바이오소재	(농공학63-67) 79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농업기계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농생대 학장,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한국농업과학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柄東교수·식물생산	(농학62-66) 74년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 후 재로미세조작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원예학과장, 한국유전체학회 회장,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소장 등을 역임했다.
 徐庸宣교수·서양화	(회화75-79) 82년 모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서양화 분야 연구와 강의 및 작품 활동을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미대 부학장·서양화과장 등을 지냈다.	 梁彰洙교수·법학	(법학70-74) 87년 모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민사판례연구회장,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냈다. 현재 대법원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李庸煥교수·농산업교육	(농업교육63-67)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농산업교육과장, 한국농업교육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농업 및 환경교육 자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농생대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韓基祥교수·독어교육	(독어교육64-68) 80년 독일 기센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독일문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해설학회 회장, 독어독문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鄭淸禧교수·체육교육	(체육교육62-66) 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 후 스포츠심리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장, 한국올림픽성화화장 등을 지냈다.	 李宗宰교수·교육학	(교육학64-68) 74년 미국 플로리다주 린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교육행정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李仁世교수·수의학	(수의학62-66) 84년 모교 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수의학부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수의대 부학장·수의과학연구소장, 대한수의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李承基교수·약학	(약학65-72) 83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생화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약대 학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東進교수·체육교육	(체육교육62-66) 89년 한양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부임해 체육학(여가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학생처장·체육교육과장·관악사 사감 등을 지냈다.
 趙士先교수·의학	(수의학65-72)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천연물 독성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뇌신경학회 이사장, 대한해부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申英秀교수·의학	(의학63-69) 77년 미국 예일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의료관리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보건 의료관리연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등을 지냈다.	 張日武교수·제약학	(약학62-66) 72년 미국 휴스턴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천연물 독성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천연물과학연구소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아시아 독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崔康元교수·의학	(의학62-69) 77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에 부임해 내과학·감염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보건진료소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대한에이즈협회장 등을 지냈다.	 李善子교수·보건학	(간호61-65) 83년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해 보건간호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朴贊-교수·의학	(의학63-69) 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방사선종양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치료방사선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폐암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東建교수·행정학	(경제61-65) 73년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재정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기획실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콩트 릴레이

머나먼 만남

林 敬 淳

(국어교육83-87)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교수



세상에 나온 지 두 달이 조금 못 된다고 했다.

“한 배에서 난 다른 녀석들보다 이 녀석이 제일 실하고 착하게 생겼지요. 예방 주사 다 맞혔고, 밥은 이거 주시면 됩니다.”

주인은 얼굴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 잘 생기지 않았느냐, 눈곱 하나 없이 건강한 녀석이니 아예 값을 깎을 생각 말라고 했다.

막내 딸 유미가 요즈음 부쩍 강아지 타령을 했다.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시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은 아니어도 세대수가 많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왔으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강아지는 장차 어른개가 되는 동물에 불과하지 애완견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졌다.

차를 타고 가면서, 집에 전화를 했다.

“유미야 네 생일 선물로 뭘 샀는지 알아 맞춰봐.”

딸 유미는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지금 어디쯤 오느냐고 세 번이나 전화를 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아지 이름은 정해져 있었다.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강아지를 받 아들면서 그들(아내, 아들, 딸)은 ‘초롱’이라 불렀다. 초롱이는 어느덧 아이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버렸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뺨을 부비는 것도 예삿일이 됐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활이 활기가 넘치는 듯했고, 아내는 이제 자식 대신 키우는 셈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한 생명체로 인해 가족이 이렇게 달라질 수

놓아주신 어머니를 낯설어 하다니.

진동으로 돼 있는 핸드폰에 아내의 전화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전화를 여러 번 했네.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위독하셔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나 봐요.”

초롱이가 화장실 바닥에 배설을 하고 나면, 물을 뿌려 치우곤 했다. 아마도 누군가 배설물을 치우면서 뿌린 물기 때문에 어머니는 넘어지셨을 것이다. 이제 여든을 넘기신 어머니는 늦가를 마지막 잎새와 같아서 순발력이 떨어지셨을 터이고, 그것은 곧 치명적인 사태로 치달을 수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희미한 의식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뇌진탕입니다. 왼쪽 뇌가 손상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술 중 잘못될 확률이 높습시다. 연세가 있으시나... 결정을 하십시오.”

“좀더 경과를 두고 볼 수는 없는지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젊은 사람 같으면, 당장에 수술을 하겠는데... 하루 이틀 경과를 두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으로 오랜만에 神을 찾았다.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릴

됐단다. 전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동생네 집에 갔다가 그 아들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어디에 산다고 했는데, 잊었다 ...; 아들 어릴 때 사진이 어디 있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는 눈으로, 내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어미된 자로서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을까. 어머니는 인생의 겨울을 넘기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셨던 게다.

이제 홀로 남으셨던 오빠마저 몇 년 전 세상을 뜨고 말았고, 재혼한 남편마저 떠나보낸 지 오래됐다. 아들 녀석들이 장성했건만, 떠나보낸 망자들만큼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버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많이 알지 못해서요.”

나는 아버님의 형제가 어떻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던 터에, 아버님 집안 내력이 궁금했다.

“네 작은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후유증으로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다고 하고, 큰아버지와 큰고모, 작은고모는 전쟁 때 후퇴하면서 북으로 갔단다... 네 아버지는 북으로 간 형제를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 어떻게 살아남아서 수리 조합에 다니면서 입에 풀칠은 하게 됐고...”

나는 병상을 형님에게 맡기고,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커다란 전화번호 수첩을 기억해냈다. 어머니는 거기에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적어놓으셨던 것이다. 어쩔 수첩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셨던 아들의 전화번호가 있을 것만 같았다. 늘 변함없이 몇 십 년을 들고 다니시는 가방에는 성경책과 안경 그리고 손수건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가방 바닥에 깊숙이 놓여 있는 전화번호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낯선 이름을 보고, 어머니의 흔적을 좇아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화기에서는 어딘지 외로워 보이지만 당차 보이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순옥 씨를 아시는지요?”

“누구신지요?”

“김순옥 씨가 위독하셔서...”

육십이 훨씬 넘어버린 그는, 아니 나에게 는 형님이 그는 병원 중환자실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중환자실 입구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도의 공기는 지나버린 세월만큼의 무게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형님은 잠시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떨궈 어깨를 들먹거렸다.

어머니의 눈이 가느다랗게 뜨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당신이 잡으신 손길만으로도, 전해오는 숨결만으로도 아들의 존재를 느끼고 계셨던 것이리라.

“다행히 경과가 좋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태면, 젊은 사람도 어려울 터인데, 정말 초인적인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의사는 좋아지고 있으니 좀더 지켜보자고 했다.

병원을 나서는 형님의 뒷모습에서 난 어딘지 낯익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어미된 자로서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을까.
어머니는 인생의 겨울을
넘기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셨던 게다.”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 (서양화02-07) 동문

장날 어머니의 광주리에 실려 가거나, 목걸이가 채워져 마당 한 귀퉁이를 지키고 있거나, 어쩌다 동네에 개장수가 나타나면 어디론가 팔려가곤 하던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치우거나, 그로 인해 배설물로 개집 주위를 어지럽혔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 강아지를 집안에 들여놓고, 함께 지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애완견을 키우는 모험을 감행해 보는 것도 관촬을 뜻싶었다. 그 이유는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아이들이 강아지 타령을 할 때면, 아내는 아이들에게나 나이트 사람들한테도 애완견이 좋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은근히 응원하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눈치다.

인터넷을 뒤져 털이 잘 안 빠지고 온순한 종류를 물색했다. 주인은 생일과 예방 접종 기록이 담긴 종이와 함께 어린 시주를 건네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디에서 알았는지, 배설물을 가리는 훈련법을 초롱이에게 능숙하게 시행했다. 훈련이 효과가 있었는지, 초롱이는 화장실 바닥에 배설물을 적적 쏟아낼 수 있게 됐다.

“아범아,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형편 어때니. 너희 집에 가려는데...”

어머니가 형님 댁에서 우리 집에 오셨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는 듯했다. 아나 ‘오랜만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 때는 물론이고, 특별한 날 예컨대 아버님 추도식이라든지, 친척 애경사에서도 빠짐없이 뵈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들네 집들을 순회하셨다. 그런데도 오랜만에 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처음 뵈는 순간 어머니가 낯설었다. 이 어찌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있는가. 자기를

순 없었다.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살만큼이나 세월을 모질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한 순간이나마 더 보게 해달라고 빌었다.

어머니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내가 두 아이를 두고 세상에憾하지 않을 나이가 돼서야 당신의 이야기를 하셨다. 어머니는 위로 오빠가 여섯인 집 막내로 태어나셨다. 오빠 다섯은 6·25때 남한군으로 전사했고, 당신은 징용을 피하려는 양반 가문의 아들에게 열 여덟의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됐다. 해방이 되고 어느 날 빨치산이 들이닥쳐 곤육을 치르게 됐는데, 전 남편은 그 길로 빨치산을 따라갔다고 한다. 빨치산이 물러가자 경찰로부터 빨치산을 도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은 또 한차례 곤육을 치러야 했다. 그 뒤로 시집 부모를 모시고 10년을 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자랑스런 平商人賞 수상



본회 金在淳(경 제 47-52 샘터사 고문) 명예회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평양상업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平商人賞을 수상했다.



청주고총동문회 鄭貴來회장이 林光洙회장(左)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자랑스런 淸高人賞 수상

본회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회장)회장은 지난 3월 30일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청주고총동문회 2009년 정기총회에서 제2회 자랑스러운 淸高人賞(산업·경영분야)을 수상했다. <사진>

林회장은 이날 청주고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일본 학사원 정기총회에서 자연과 학분야 명예회원에 선출.

▲張潤錫(의학49-55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 지난 2월 28일 대만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에 추대.

▲尹明老(회화56-60 모교 서양화

과 명예교수·예술원 회원)= 지난 4월 1일 중국 센젠에서 열린 '2009 관한 국제 관화비엔날레' 국제심사위원회에 선임.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서울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3월 25일 임기 3년의 대한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에 재선출.

▲李東和(외교59-63 前서울신문 상무이사 겸 주필·삼성언론재단 연구위원)= 지난 2월 26일 서울신문 제29대 사장에 선임.

▲宋相現(법학59-63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 지난 3월 11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에 선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지난 2월 2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총회에서 감사에 선출.

▲韓南圭(영문64-70 前중앙일보 수석부사장)= 지난 3월 27일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에 취임.

▲崔吉善(조선공학65-69 현대중공업 사장)= 지난 3월 19일 임기 2년의 한국조선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임.

▲安吉龍(행정65-73 前동양증권 증권 대표)= 지난 3월 24일 한맥투자증권 상임고문에 선임.

▲任道彬(법학65-71 前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 대표)= 지난 3월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동 정

수 상

▲李元馥(조선항공46-50 前대한항공 전무·예비역공군 대령)= 국산 1호 경비행기 '부활호'(문화재 제411호)의 설계·제작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월 22일 공군본부로부터 '공군을 빛낸 인물' 특별상 수상.

▲金睿告(법학52-56 코리아나국제투자자문 회장·도란캐피탈 부회장)= 최근 와이즈맨 중부지부대회에서 자랑스런 와이즈맨

감사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지방 성로회에서 공로패, 법대동창회 낙산장학회에서 감사패 수상.

▲羅正雄(전자공학59-63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지난 3월 18일 8회 한국공학상(전기·전자분야) 수상.

▲朴官和(농화학62-66 모교 농생대 명예교수)= 지난 3월 18일 8회 한국공학상(화학·식품분야) 수상.

▲洪禮杓(치의학65-71 홍예표치과의원장·치대 동창회장)= 지난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우수납세자 표창장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회장)= 최근 매경이코노미가 뽑은 '2009년 한국의 100대 CEO'에 선정.

▲鄭俊陽(공업교육75졸 포스코 회장)= 지난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여하는 제18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崔炳奎(산업공학69-73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지난 3월 18일 8회 한국공학상(기계·금속·산업공학분야) 수상.

▲吳禹澤(제약학74-78 모교 의학과 교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白盛喜(식품영양90-9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난 3월 18일 제12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조기현(기약02-06 바이올리니스트)= 지난 3월 22일 미국 뉴욕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워싱턴국제콩쿠르에서 1위 차지.

▲李鍾煥(AMP 7기 삼영화학그룹 회장)= 지난 3월 25일 사재 6천억을 장학사업 등에 기부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崔秀夫(AMP 15기 광동제약 회장)= 지난 3월 6일 경실련이 수여하는 제18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상 수상.

▲都東煥(AMP 26기 민족문화영상협 회장)= 지난 3월 7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북상주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인 사

▲李鎬王(의학48-54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 지난 3월 23일

▲玄珪錫(경영70-74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3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제13대 원장에 선임.

▲鄭亨元(정치71-75 前현대로템 부회장)=지난 3월 20일 에너지 전문회사인 삼천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白正基(경제71-75 보광웨미리마트 사장)=최근 한국편의점협회 제9대 회장에 선임.

▲朴一薰(국악75졸 前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지난 3월 19일 임기 3년의 제15대 국립국악원장에 임명.

▲高永基(체육교육72-78 前대한적십자사 교육원장 겸 人道法 연구소장)=최근 고급인력 알선 전문회사인 Future Consulting 사장에 취임.

▲金光秀(미생물73-77 하버드대의대 교수)=지난 3월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초빙연구원 겸 뇌신경연구센터장에 선임.

▲金俊植(금속공학73-80 포스코 상무)=지난 3월 24일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회장에 선임.

▲琴明子(간호76-80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최근 임기 1년의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에 취임.

▲白珍鉉(법학76-80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3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

▲成世正(정치86-91 KBS 아나운서)=지난 3월 17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취임.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대표·중앙대 겸임교수)=지난 3월 17일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장에 선출.

▲金鎮敦(HPM 4기 운제당한의원장·송파수필작가회장)=최근 제10대 서울 송파문인협회장에 선출.

▲李喜碩(ACPM 4기 前대우건

설 상무)=지난 3월 23일 (주)한양 건축·주택사업본부장 겸 부사장에 선임.

행 사

▲崔政休(임학55-59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지난 2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李炳弼(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블루베리협회장)=지난 2월 2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블루

베리 열매 및 잎의 건강기능성과 블루베리 엽차 생산체계’ 국제세미나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오는 4월 30일 오전 9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북한법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吳 明(전자공학64-66 건국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30년 후의 코리아를 꿈꿔라’(웅진출판사) 출판기념회 개최.

▲金鍾燮(사회사업66-70 스펙코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3월 30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주)스펙코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金錫俊(토목공학69-7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지난 2월 11일 워싱턴DC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 세미나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제 발표. 또 12~16일 시카고 미국과학진흥협회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발표.

▲朴大東(경제69-73 예금보험공사 사장)=지난 3월 24일 러시아 예금보험원 알렉산더 투르바노프 사장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최근 네팔을 방문해 아다브 대통령, 다할 총리, 제1야당 네

팔의회당 코이랄라 총재를 만나 네팔 언론상황에 대해 의견 교환.

▲薛均泰(행정원88-90 경주·순창 설씨 대종회장)=지난 3월 21일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가수 설운도(본명 李英春)에게 명예 순창 설씨 인증패 수여. 또 薛東根부산교육감에게 공로패 수여.

▲趙渭新(기악89-93 한국산업기술평가심의회 명예교수·타악기 연주자)=지난 4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아니스트 李憲姬(기악

90-94)동문, 오보이스트 趙允新(기악91-95)동문 등과 함께 로시니, 파커, 피아졸라, 하차투리안 등의 작품으로 앙상블 MI-U 정기연주회 개최.

▲朴昭映(동양화92-96 고려대·한양대 강사)=지난 2월 11~17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가이아의 ‘2009 우수 청년작가 기획전’을 통해 개인전 개최.

▲李丞蕙(작곡92-96 前캐나다레스브리지주립대 조교수·서울종합예술원 강사)=지난 4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임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전수진(대학원01-04 백석예술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브람스, 하이든 작품으로 독주회 개최.

▲李柱炫(AMP 45기 해광건설 회

장)=지난 2월 25일 조선대 학위수여식에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 받음.

▲김상백(HPM 11기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지난 2월 20일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자연치유학 박사학위 취득.

명복을 빕니다

(팔호안은 향년 표시)

- ▲邊太燮(역사교육45-49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3월 8일 별세(84세)
- ▲李成萬(작곡51졸 前음악예술사 대표)=3월 11일 별세(86세)
- ▲尹能民(화학47-51 서강대 명예교수)=4월 1일 별세(82세)
- ▲李錫祐(물리교육50-54 한국해양과학기술 회장)=3월 7일 별세(79세)
- ▲尹德老(의학52-58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3월 12일 별세(76세)
- ▲李璣鉉(농경제56-61 모교 농생대 명예교수)=3월 21일 별세(74세)
- ▲李相哲(상학56-60 前국민은행장)=3월 13일 별세(73세)
- ▲安光畵(행정64졸 前통상산업부 장관)=3월 26일 별세(67세)
- ▲白正善(수학77-81 전남대 교수)=3월 10일 별세(5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전화 : 02)886-2219 • 이메일 : snua@paran.com

신 간

■ 문학지리
－ 吳洪哲 지음



한국 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吳洪哲(지리 교육 54-58) 전문연구위원이 문학의 터전인 국내 삼산오악과 영산, 명산과 국립공원, 강과 호수, 바다와 섬 등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책. 이 책에서는 현대문학과 관련시켜 인간 활동의 무대와 장르별로 작품을 연계해 놓았는데, 이는 장소·소재에 따라 작품을 정리하는 출발점을 여는 동시에, 시간변화에 따른 표현방식을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또는 장소와 관련된 현대 문학 작품들을 발췌·검토하며 작품 속에 담겨진 그윽한 향기를 실질공간과 연계시키면서 표현이 등장하게 된 지리적 배경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부연사刊·값 30,000원〉

■ 중국근대언론발달사 : 1815~1945
－ 車培根 지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3국의 근대언론은 다같이 서양의 언론문물을 수용해 생성됐다. 동양 3국의 근대언론은 근대사회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모교 언론정보학과 車培根(국어 교육 60-65) 명예교수가 중국과 일본은 서양의 언론문물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떠한 근대언론을 생성시켰는가를 기술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을 고찰해서 이를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과 성격 등을 좀더 정확히 규명해 보는데 이 책의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25,000원〉

■ 그리스 자연철학 이해
－ 李昌大 지음

인하대 철학과 李昌大(철학 61-65) 명예교수가 그리스 자연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에 관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책.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들 중 특히 헤라클레이토스철학과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 철학인 스토아철학, 그리고 에피쿠로스철학을 중심으로 수년간 연구한 논문들이 실려있다. 원래 플라톤철학을 연구한 李東문은 헤라클레이토스철학을 접하는 순간 플라톤철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알게 됐다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그리스 철학은 존재 중심의 철학으로, 기독교 사상과 결합해 서구철학사상의 정통 직계가 됐다. 그러나 그리스 자연철학 연구는 서구에서 중세 내내 거의 무시되다가 겨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각광받게 됐는데, 이는 서구사상이 기독교의 율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지평의 사상을 모색하는 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인하대출판부刊·값 13,000원〉

■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킬
－ 李庸煥·金鎮模 지음



모교 농업 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李庸煥(농업 교육 63-67) 명예교수와 金鎮模(농업 교육 81-85) 교수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안내서를 펴냈다.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와 구성요소, 유형과 절차,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청중·장소 분석, 내용 개발, 전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총 4부 13장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16,000원〉

■ 한국근대문학교육사연구
－ 禹漢鎔 지음



모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禹漢鎔(국어교육 68-75) 교수가 중등교육에서 이뤄진 문학 교육의 과정을 기술하고 그 의의를 밝히며, 나아가 한국 문학교육의 전망을 제시했다. 禹동문은 이 책에서 문학교육은 인간의 성장 문제를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있다며, 학습자를 문학적 인간으로 육성하고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일이 문학교육의 책무이며, 감수성과 논리와 이념이 조화를 이룬 성장을 꾀하는 데에 문학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학교육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학교육이 수행된 과정을 검토하고 해석해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20,000원〉

■ 나의 살던 서울은
－ 尹在錫 지음



국민일보 논설위원인 尹在錫(화학교 육 71-75 본보 논설위원) 동문이 서울 토박이의 삶을 솔직한 에세이집. 5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尹동문은 서울의 四季, 그리고 명소와 비소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만난 수다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그들과 나는 교감을 책 속에 담았다.

서울은 누구에겐 정나미 떨어지는 타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일확천금, 입신양명을 달성한 드림랜드일 수도 있겠지만 尹동문에게 있어선 떠올리기만 해도 따사롭고 코끝 찡해지는 고향이다. 尹동문은 서울에 관한 한 누구 못지않은 딜레타트를 자임하며 늘어 쇠잔해질 때까지 서울 탐험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다. 〈청어刊·값 9,000원〉

■ 한국기업의 인사평가 변천사
－ 朴吾銖·金起台·全炳俊 共著



모교 경영학과 朴吾銖(경영 71-75) 교수와 金起台(경영 84-88 상명대 교수)·全炳俊(경영 84-88 중앙대 교수) 동문이 근대적 의미의 인사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발간된 학술연구, 실무자료, 통계자료, 실무자와의 면접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인사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근대적 인사평가제도의 도입 및 제도 구축기, 확산 및 정착기, 변혁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인사관리의 환경적 특성, 인사평가의 목적,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평가단계, 평가대상 등의 특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비교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공 연

■ 趙允敬 피아노 독주회
－ 4월 21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趙允敬(기악 91-95 이화여대·서울시립대 강사) 동문(사진)이 4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趙동문은 이날 바흐, 브람스, 바르토크, 메시앙 등의 작품으로 연주 기량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바리톤 全奉求 독창회
－ 4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바리톤 全奉求(성악 64-68 경원대 교수) 동문(사진)이 4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독창회를 연다. 全동문은 이날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의 작품과 김동진 작곡의 수선화, 가고파, 목련화, 못잊

10,000원)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2
－ 尹汝昌·金丁勛 외 지음



모교 산림과학부 尹汝昌(임학 74-79) 교수, 환경대학원 金丁勛(토목 공학 64-68) 교수 등이 북한의 환경문제를 조명하고 남북한의 환경정책을 비교한 책을 펴냈다.

어 등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하프시코드 高賢珠 연주회
－ 4월 30일 문호아트홀



하프시코디스트 高賢珠(기악 83-87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 동문(사진)이 4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문호아트홀에서 바하 건반음악 전곡 연주 및 해설의 자리를 마련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소프라노 許美京 독창회
－ 5월 1일 세종문화회관



소프라노 許美京(성악 81-85 인제대 교수) 동문(사진)이 5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로맨틱 집시'를 주제로 독창회를 갖는다. 許동문은 이날 브람스, 슈만, 생상스, 푸치니 작품으로 한층 성숙해진 음악성을 발휘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1권은 남북한의 산림자원 현황, 이용추이 및 산림정책을 비교해 북한의 산림황폐화 원인인 다락밭 확장현상을 분석하고, 북한의 주요 광물생산 실태와 남북한 광물자원의 지역별 분포 및 남북한간 광물자원 개발협력 가능성을 분석했다.

2권은 남북한 상하수도 현황 비교와 북한 수자원문제의 구조적 특성 파악, 남북한 수질관리정책 비교 및 남북한 수질관리 분야 협력 필요성, 남북한 대기관리정책 비료 및 북한의 지역별 대기현황 분석, 북한 폐기물 관리 정책 분석 및 북한에서의 폐기물관리 과제 등을 정리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14,000원/13,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전자공학48-56)
 - △김종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자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운(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인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윤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30만원
 - △이중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운(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종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효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하상완(치의학64-70)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고원호(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윤(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약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규(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회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한규택(원자핵공73-77)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줄)
◆1천1백10만원
△이흥중(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욱(약학55-59)
◆1천30만원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현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해언(토목공학61-65)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줄)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안경상(행정학57줄)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병재(경대원69줄)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줄)
△이송은(상학53-57)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자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욱(의학63줄)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줄)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황남주(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9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6백만원
△김현산(법학54-58)
◆5백만원
△박수복(농생물학56-61)
△신박일(약학60-64)
△윤성근(공업교육74-78)
△윤순녕(간호학69-73)
△윤익석(축산학49-53)
△이운경(간호학65-69)
△이현구(AMP 52기)
△조상근(행정학69-73)
△조원환(AMPP 6기)
△법대3회 동기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줄)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숙일(물리학54-58)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영수(법학60-64)
△김재율(경성법전39줄)
△박금식(화학54-58)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이재식(교육학75-79)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의학56-60)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72)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3월 17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2백만원
△김해경(생물교육70-74)
△문창극(정치학68-72)
◆1백21만원
△박정식(약학57-61)
◆1백20만원
△송창기(중어중문57-62)
◆1백만원
△송언기(AMP 28기)

◆50만원
△김진옥(농학52-56)
◆30만원
△강민창(신대원68-70)
△김종연(ACAD 29기)
◆11만원
△배재연(법학55-59)
◆10만원
△김봉은(불어불문00-07)
△김용정(약학58-62)
△김진섭(경영학85-89)
△민미란(국악73-77)
△성대영(AIP 33기)
△엄경은(불어교육84-88)
△유성규(국어교육55-59)
△이광희(화학공학55줄)
△이은기(법학77-84)
△이은흥(ACAD 48기)
〈이상 2009년 2월 25일
부터 3월 17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지하 6층 C구간 바닥 콘크리트 공사 중인 장학빌딩 현장 모습. 4월 1일 현재 공정률은 28%. C구간 6개 층 공사(경사로)가 마무리되려면 2~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A구간(사진 우측), B구간(사진하단 정면)의 지하공사는 완료됐다. 지하층은 주차장, 기계실, 근생시설(지하1층)이 들어온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9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일반 (09. 1. 21 ~ 22)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劉常夫=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선재 공대76
△강종호 농대60 △고문자 미대62
△구인환 사대50 △김광훈 AIC11
△김기순 공대76 △김덕룡 문리61
△김도훈 사회75 △김명진 농대78
△김영진 공대76 △김정호 치대80
△김종열 치대60 △김태영 ACAD29
△김환수 법대52 △문일환 치대65
△박경찬 의대74 △박순용 법대63
△박장준 AIP18 △박종찬 공대71
△방형찬 문리64 △부구욱 법대70
△송춘영 ALP5 △신용하 문리67
△안택주 공대61 △양봉진 농대71
△원우식 상대52 △이대성 공대75
△이무진 공대53 △이용훈 법대59
△이주영 법대70 △이철우 농대61
△장기봉 AMP59 △장정현 경영78
△정영균 공대81 △정우창 농대54
△채경호 공대70 △최성락 인문72
△하창우 법대74 △한수영 AIP35
△홍성관 문리63 △강계두 行院84
△강유진 사회01 △강창우 인문84
△고석훈 치대71 △권정자 AFP1
△김건식 법대73 △김경호 AIP30
△김남균 법대01 △김동수 AIP38
△김무조 공대57 △김병철 AIP38

(일반) △강우석 미대99 △강일우 공대71
△강준구 상대62 △고유문 공대61
△권정현 경영00 △김건우 공대00
△김광원 법대63 △김남진 AMP10
△김득하 AMP53 △김복국 사대69
△김성근 법대58 △김수관 AIP37
△김영인 AMP12 △김영철 수의82
△김용년 문리54 △김인동 문리70
△김재협 법대75 △김정아 음대88
△김종현 의대71 △김진옥 농대52
△김창현 경영06 △김해식 AIP38
△김희국 공대54 △목정원 인문04
△박 인 자연05 △박상호 AMP61
△박영희 사회82 △박제균 농대82
△박창호 ASP1 △박효봉 공대58
△배정훈 사회99 △백승하 공대81
△변금옥 치대59 △서성민 行院06
△석희철 ACPM4 △성기훈 공대01
△성백신 사대47 △신동규 상대69
△신동우 문리71 △안 휘 농대81
△안경민 치대76 △양석승 AMP63
△엄경자 AMPF6 △오은중 농대00
△유태호 ACAD62 △윤맹현 공대66
△윤수연 미대90 △이건수 공대03
△이경화 미대02 △이광국 치대59
△이만식 상대53 △이민수 사회02
△이상학 상대59 △이성우 ACAD47
△이승구 상대60 △이재운 공대84
△이종열 공대71 △이준혁 공대85
△이태일 법대61 △이현주 의대91
△이호영 공대04 △임도수 AMP20
△임진우 의대49 △장주영 법대82
△전영준 법대94 △정기권 HPM19
△조경목 공대74 △조인상 AMP2
△주성철 GLP17 △지종민 GLP17
△채희주 간호97 △최종세 AIP34

△김수관 AIP37 △김영인 AMP12
△김영철 수의82 △김용년 문리54
△김인동 문리70 △김재협 법대75
△김정아 음대88 △김종현 의대71
△김진옥 농대52 △김창현 경영06
△김해식 AIP38 △김희국 공대54
△목정원 인문04 △박 인 자연05
△박상호 AMP61 △박영희 사회82
△박제균 농대82 △박창호 ASP1
△박효봉 공대58 △배정훈 사회99
△백승하 공대81 △변금옥 치대59
△서성민 行院06 △석희철 ACPM4
△성기훈 공대01 △성백신 사대47
△신동규 상대69 △신동우 문리71
△안 휘 농대81 △안경민 치대76
△양석승 AMP63 △엄경자 AMPF6
△오은중 농대00 △유태호 ACAD62
△윤맹현 공대66 △윤수연 미대90
△이건수 공대03 △이경화 미대02
△이광국 치대59 △이만식 상대53
△이민수 사회02 △이상학 상대59
△이성우 ACAD47 △이승구 상대60
△이재운 공대84 △이종열 공대71
△이준혁 공대85 △이태일 법대61
△이현주 의대91 △이호영 공대04
△임도수 AMP20 △임진우 의대49
△장주영 법대82 △전영준 법대94
△정기권 HPM19 △조경목 공대74
△조인상 AMP2 △주성철 GLP17
△지종민 GLP17 △채희주 간호97
△최종세 AIP34 △김수관 AIP37
△김영인 AMP12 △김영철 수의82
△김용년 문리54 △김인동 문리70
△김재협 법대75 △김정아 음대88
△김종현 의대71 △김진옥 농대52
△김창현 경영06 △김해식 AIP38
△김희국 공대54 △목정원 인문04
△박 인 자연05 △박상호 AMP61
△박영희 사회82 △박제균 농대82
△박창호 ASP1 △박효봉 공대58
△배정훈 사회99 △백승하 공대81
△변금옥 치대59 △서성민 行院06
△석희철 ACPM4 △성기훈 공대01
△성백신 사대47 △신동규 상대69
△신동우 문리71 △안 휘 농대81
△안경민 치대76 △양석승 AMP63
△엄경자 AMPF6 △오은중 농대00
△유태호 ACAD62 △윤맹현 공대66
△윤수연 미대90 △이건수 공대03
△이경화 미대02 △이광국 치대59
△이만식 상대53 △이민수 사회02
△이상학 상대59 △이성우 ACAD47
△이승구 상대60 △이재운 공대84
△이종열 공대71 △이준혁 공대85
△이태일 법대61 △이현주 의대91
△이호영 공대04 △임도수 AMP20
△임진우 의대49 △장주영 법대82
△전영준 법대94 △정기권 HPM19
△조경목 공대74 △조인상 AMP2
△주성철 GLP17 △지종민 GLP17
△채희주 간호97 △최종세 AIP34

△한우진 공대99 △홍원표 AFB8
△황영기 상대71 △한지원 사회02
△황대현 HPM18 △황은영 법대87

일 반

◆인문대 △김영균82 △이장욱87
△정희관91 △최종진87
◆사회대 △강형일99 △권태훈87
△김민관97 △김연진85
△김용대73 △문병성74 △박 철81
△백승주93 △이현태96 △장 원86
△장진우88 △정성호81 △주순식73
△차명진79 △황병철73
◆자연대 △강경관70 △김준식91
△박용진99 △이상규05 △이현행99
△정동근84
◆간호대 △김경자60 △이산옥56
◆경영대 △박재진02 △이대성73
◆공대 △강무치68 △강인권72
△강호석62 △고종환00 △김경원83
△김남영69 △김동화03 △김병진50
△김선구71 △김영진65 △김은철77
△김재수91 △김재원61 △김정인94
△김지환48 △김천환65 △김택환45
△노충래62 △문경섭82 △문동채65
△박영순01 △박용일62 △박재범84
△박종인97 △박효대76 △변성우63
△부상훈90 △서익석49 △송원영96
△송인상00 △송재극52 △송현택49
△신기조43 △신현목45 △유승현99
△유인봉55 △윤상건73 △윤영수47
△윤일권90 △이규재44 △이법철65
△이상순52 △이상홍56 △이선우46
△이예민46 △이태중77 △이화용70
△이희일52 △임달연48 △장문성95
△장재일48 △정진경48 △정훈조96
△조한모61 △진은석91 △최동혁05
△최명진58 △최수길85 △최영휴74
△최호근83 △허영식67 △허성윤90
△홍재훈81
◆농대 △김이기80 △김재욱46
△김재학53 △박승걸53 △박정수61
△반성환50 △백상덕59 △신현우01
△안상근81 △우무일64 △윤형수65
△이 욱99 △이을룡53 △이재구58
△이종구53 △이진호57 △정관출81
△정성호51 △조한옥53 △하맹중58
△허문화48 △홍순룡66 △홍철기97
◆문리대 △강명순59 △권의식67
△김규완60 △김복문51 △김석준44
△김수년49 △김용웅64 △김재욱52
△김찬근69 △김홍철53 △남풍현55
△명제영55 △변장명56 △서인수50
△석명철66 △신장호59 △오재규52
△우창웅52 △윤임구61 △이규증55
△이근남68 △이문조63 △이영준67
△이지영67 △이해봉62 △이희경59
△임병주50 △정삼윤64 △조용직60
△최동환49 △황의박63

◆미대 △이상희60 △이운식56
△차시은93 △한상희04 △함혜란83
◆법대 △강형중84 △강화석90
△곽정출57 △김순구58 △김수평61
△김영기54 △김원주53 △김정환57
△김종훈83 △김한용79 △김형렬83
△문택상50 △박성진64 △박세철51
△박연철68 △박우순58 △박진우92
△박철우54 △안경수99 △양수일62
△오정돈79 △이건방62 △이경민76
△이두아89 △이상용67 △이상훈78
△이순기03 △이승환55 △이채주53
△정규상82 △정지태58 △조병직46
△주석영79 △최강섭78 △하윤홍80
△허승태73
◆사대 △김갑순61 △김혜정85
△남규욱43 △박갑순52 △박노학50
△박상욱02 △박완규80 △박전배74
△변모은90 △서인경51 △설정숙53
△안광화63 △윤성원57 △윤형원56
△이병순67 △이종순52 △이희명49
△전래수52 △전팔근47 △정호경52
△정희섭76 △조익선40 △진원우72
△최광만49 △최병록49 △최화자64
△한상순46 △현영희57 △홍인기54
△황석근51
◆상대 △곽 규51 △구의일61
△김문현58 △김병기54 △김유일53
△김인기52 △김종원56 △류대환48
△문무상54 △박종기52 △성백규52
△심소일49 △심창순58 △오영욱45
△우상섭53 △유대진51 △유병구54
△유병인58 △유춘식51 △윤가현52
△윤길현52 △윤여훈67 △이근석51
△이성열69 △이승로49 △정찬철70
△조동후51 △진영수63 △차병권44
△홍동진48
◆생활대 △엄윤경78
◆수의대 △박민택52 △전원표56
△정영시54 △황인학49
◆약대 △김민국47 △김부근60
△김정희57 △문현영02 △오병무62
△정용호71 △최병균52
◆음대 △김영희53 △성양자60
△송인정95 △이선영86
◆의대 △김종박59 △박남진71
△박한철53 △박현승77 △백승기83
△신성우47 △오준호45 △원세재46
△이덕수55 △이범구73 △이상립46
△이종호81 △이진오58 △임승재61
△장준우87 △정병영94 △조병주46
△차명진01 △최관흠52 △최현규52
△최희욱51 △한예택50 △홍성출69
◆치대 △김성범04 △김현진56
△신문혁63 △오기환53 △유세정51
△이기훈70 △이병윤53 △이태영67
△조영선53 △조창홍46 △차민회57
△허 식53 △홍현중82
◆대학원 △김인배68 △안혜경00
△이규열84
◆경대원 △이영희67

◆교대원 △변정숙64
◆국대원 △장용연04
◆보대원 △김운서72 △이수형01
◆행대원 △권택상81 △김석균92
△남호현82 △박찬도64
◆한대원 △유철상77 △채승기81
◆AMP △강제문42 △김기석64
△김동엽6 △김장규58 △김정규24
△도동환26 △백남홍23 △백문현25
△서종택12 △안시환20 △원동혁16
△유세종56 △유재우47 △이동훈35
△이성철12 △이영주5 △정상태36
△지종우6 △최병택6 △홍기호47
◆AIP △김정웅12 △김주곤3
△박상조33 △백경흠23 △윤재영36
△이봉훈36
◆ACAD △김덕영18 △김수중5
△김형준47 △박대열58 △박만윤40
△박성득20 △성시철55 △이강연27
△이근일40 △이영기27 △전영배5
△조옥식16 △조주태14 △채항석10
◆ABP △박형규20 △송기덕23
△양병기30 △전안희20
◆SGS △김권욱18
◆APC △박광신8
◆HPM △변 욱22 △손규호11
△신현희20 △윤영웅4 △이상완11
△정승혜19 △조영식18 △최승용9
△최진호19
◆AIC △강문현17 △허현욱13
◆AFB △이진순1
◆AMPFRI △김성호2 △장경진21
△최병도12
◆ACPM △임종식1
◆GLP △강홍석16 △이성호13
△임재목9 △최길운16
◆ALP △권동환2
◆SPARC △박승식6
◆AFP △김기열2 △김낙희2
△김영섭2 △김영희1 △김우식1
△김인환2 △김학균1 △김홍렬1
△류희수1 △박상국1 △서성복1
△서성숙1 △성기호1 △손관춘1
△송인회2 △신길수1 △안희동1
△유문선1 △유석성1 △유철준2
△윤동환2 △이광훈1 △이근상1
△이상업2 △이주호1 △이화경2
△임춘수2 △조성익2 △주장건1
△최동수2 △최중희2 △허기호2
△허상만1 △허태수2 △홍은주2

2 월 계 : 116,060,000원
평생회비 : 78,100,000원
입 회 비 : 20,000원
총 계 : 353,150,000원

(지면관계로 이사 연회비 납부자 명단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